

세종학교

2013년 문집 제27호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세종학교 교육목적

재미 한국인의 후예들로 하여금 성숙하고 창조적인 삶을 향유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우리 겨레의 순수한 전통과 우수한 정신문화를 접하도록 교육시키며 이를 통하여 세종의 얼을 배우고 받아들여 전통 있는 민족의 긍지를 갖추도록 한다.

세종학교 각종행사

친구클럽 : 세종학교 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친구클럽은 입양아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주에 한번씩 도서관에서 만나, Korean-American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한국어, 문화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 한 달에 한번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진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평생 친구로서 서로에 대해 의지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졌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기능을 가지는 의미 있는 클럽이다.

모금파티 : 1978년 4월 비영리 단체로 등록, 모든 후원비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해마다 모금파티는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강연 및 연수회 : 매 학기 교내 교사 연수회, 미시간 한인학교 협의회와 전미한인학교 협의회 등 대외적인 강연과 연수회를 실시하고, 참가하여 보다 진보된 교육의 풍토를 조성하고 교사들의 수업 다양화에도 힘쓰고 있다.

각종행사: 한국어 이야기 대회와 동요 부르기 대회, 글짓기 대회, 역사 문화 골든벨 퀴즈 등을 개최하여 미시간 주최의 여러 대회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고 있으며 교내에서도 다양한 대회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태극마을 위문 공연: 1990년부터 새해 1월이면 새해 맞이 잔치를 하여 연장자들이 사는 아파트인 태극 마을을 방문하여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고 위문 공연도 준비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종문집: 1986년부터 발간되어 해마다 학생 작품 등이 실려 나오고 15, 20, 25, 30주년 특집호가 발간되었다.

세종예술제: 1972년 6월부터 한 학년이 끝나는 월 말에 학예 발표회식으로 학부모들을 모시고 세종 예술제를 열고 있다.

종, 졸업식 및 야유회 :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수료증, 졸업증, 학습보고서, 상장을 수여하며 세종문집을 배부한다. 식후 야유회를 개최하여 학부모님을 비롯하여 인근의 입양아 가족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종캠프 : 1976년부터 시작한 세종캠프는 Higgins Lake 캠프장에서 8월초에 3학년부 터 11학년으로 이루어진 일반 학생캠프와 6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입양아 캠프로 나누어 열린다. 한국어와 문화, 역사, 노래, 수영, 배구, 태권도, 한국 요리 등을 배우며 미국 Staff와 한국인 2세 대학생들이 지도하여 즐거운 활동을 한다.

세종학교 문집 27호를 기념하며	2
발전하는 세종학교를 바라보며	3
세종학교 제27회 문집 발간을 축하하며.....	4
발전하는 세종학교를 바라보며	5
디트로이트 한인 회장 글	7
세종학교 한해를 마무리 하며.....	8
세종 교사진	9
토끼반 / 유윤정	12
나비반 / 최희재	21
개나리반 / 김춘예	28
매화반 / 홍지연	31
난초반 / 원운경	36
무궁화반 / 노정환	41
장미반 / 윤희란	45
해반 / 한은영	50
솔달반 / 안태정	56
별반1 / 문혜민	66
별반2 / 박지영	72
신입반 / 엄선규	80
색동반 / 유정욱	83
종달새반 / 오금주	86
봉사학생/ 김윤지	89
무용 / 율경윤	91
사물놀이, 난타 / 엄지현	92
음악 / 김혜준	94
태권도 / 김재영	95

발행인: 김선미
 편집인: 원운경, 황성준
 발행일: 2013년 5월 30일
 발행처: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교장 | 김선미

세종학교 문집 27호를 기념하며

아직 창 밖으로 흰 눈에 덮여 있는 뒷마당을 보며, “올해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슬그머니 마음 한 구석이 시려웁니다. 지난 해 개교 40주년을 맞이하여 정신 없이 행사들을 준비하던 때를 생각하면 올해는 참 한가로운 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끝에 떠오르는 생각을 몇 자 적어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놓고 말하지 않아도 남으로 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 누구는 나는 아닌데..라고 할 지 모르지만 누군가로부터 받는 칭찬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매한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칭찬은 평소보다 잘 했을 때 주어지거나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 기대보다 높게 이루어낸 성과물에 주어지는 말이나 물건을 통한 보상입니다.

지금 세종학교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세종학교에게 그 동안 사람들이 가져왔던 기대에 우리가 못 미쳐서인지 아니면 믿거니 하는 마음에 그런 말이 필요할까 생각하시거나 또는 잘하고 있네 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종학교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 결과는 여러 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종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고 나누는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간을 나누고 쪼개어 쓰는 훌륭한 학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학생들에게 걸맞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곳이 세종학교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어린 나이지만 무엇이 중요한 지를 알고 실천해 나가는 학생들이 가득한 이곳에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학생들과 멋진 선생님들 그리고 따뜻한 부모님의 성원이 훌륭한 세종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착하고 예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주위에 기쁨을 나누는 학생들! 조금이라도 더 나눠 주시려고 항상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따뜻한 성원으로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시는 부모님들!

모두에게 칭찬이 필요할 때입니다. 1년을 또 무사히 보내고 한 해를 정리하는 학생들의 작품이 보여지는 이 문집에 쏟아 넣은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커다란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세종학교 여러분들!!!!



세종학교 이사장 | 김창휘



발전하는 세종학교를 바라보며

세종학교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문
집을 내놓았다. 세종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과 얼에 배우
고 또 역사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예쁜
목소리로 노래부르며 우렁찬 기합소리와
함께 태권도를 익힌다.

드넓은 미국 땅에서도 미시간에서 한국
의 후세들은 세종학교를 통해 다른 어느
곳에서도 가지지 못하는 훌륭한 한국인
으로서의 뿌리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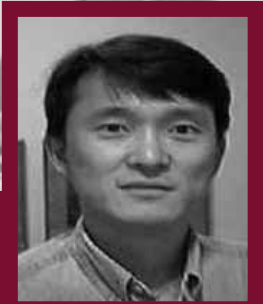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도와주시는 세
종학교의 교사진과 학부모들의 열성에
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다.

나 역시 세종학교의 역사와 함께 했었기
에 생각하기만 해도 뿌듯한 마음이 든다.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사로서 봉사했
던 기억들 그리고 아이들이 자란 후에는
이사로서 이사장으로 일해온 기억들
떠 올려보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행
운에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학생들의 작
품집인 문집 창간을 앞두고 축하글을 쓰
려니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거기에
더해 세종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
상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 뿐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한 해 한 해 더욱
더 발전하는 세종학교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꿈꾸는 모든
학생들에게 훌륭한 한국의 후예로서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미시간 한국 협의회 회장 | 오준석

세종학교 제27회 문집 발간을 축하하며

세종학교가 올 해로 개교 41주년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세종학교가 우리 한인 2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먼저 축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뿌리는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일을 계속 지원해 주신 분들,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으로 일해 주신 선생님들, 또 배우기 싫다는 자녀들을 손목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신 부모님들. 이 모든 분들의 힘이 모여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 미국에 사는 우리의 2세들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입니다. 그러기에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공로자의 한 분이실 겁니다. 함께 축하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세종학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우리의 2세들이 한국어를 배웠고, 또 그들이 미국 속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한글을 처음 접한 초등학생이 지금은 중년이 되어 있을 시간입니다. 어쩌면, 그 때 한글을 처음 접한 2세가 지금은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우리를 지키는 데에 가장 많은 공로가 있는 곳이 한국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종학교는 미시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하고 있기에 앞으로 미시간 지역의 한인 2세 교육을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사명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K-POP 등의 한류를 타고, 2세 학생들 뿐 아니라 타민족 학생들도 한국어에 대한 열의가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차분히 우리의 2세 교육에 더 치중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주변에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는 한인 2세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할 지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어떻게 시대의 로드 변화에 맞는 수준 높고 내실있는 교육을 시킬 지 함께 연구하여야 합니다.

세종학교의 개교 41주년을 맞아, 축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더 해야할 일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더 발전하는 세종학교,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위해 보다 많은 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세종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시카고 한국 교육원 원장 | 정은이



발전하는 세종학교를 바라보며

디트로이트세종학교 학생 여러분!
세종학교의 개교 4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미 중서부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학교 중 하나인 디트로이트세종학교가 벌써 41주년을 맞아 기념 문집을 발간함에 다시 한번 감개가 무량하고, 학생 여러분들의 모국어학습에 대한 향학열, 교장선생님 및 선생님들의 모국어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디트로이트세종학교는 해를 거듭할수록 탄탄한 모국어교육의 근원지로 발돋움하였으며, 나아가 많은 졸업생들이 미국 주류사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서부 13개 주 130여 개 한글학교 중 탁월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주위 한글학교의 모범과 귀감이 되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여 이제는 세계은행에서 선정하는 고소득국가로, 세계 주요 경제국가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 위원회(DAC)의 회원국가가 되었습니다. 1960년 1인당 GDP는 우간다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우간다의 30배를 넘는 1인당 GDP \$23,000의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대자동차, 삼성휴대폰, LG TV 등 우수한 한국제품들이 세계 최신제품의 각축장이라는 미국시장에서 주류상품으로 우뚝 서서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자랑스럽지 않나요?

작년 사이의 강남스타일의 열풍은 한류를 미국땅에 심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한국문화에 대한 타민족들의 관심과 열망은 가히 폭발적인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변방에서 맴도는 작은 국가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해 가는 주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우리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사적 유산을 잘 보전하고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모국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2세, 3세로 미국 주류사회 차세대 핵심인재로 성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41주년을 축하드리며, 2013년 개사년 새해에 희망하시는 모든 일에 성공과 행운이 깃들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트로이트 한인 회장 | 조영화



세종학교 제27회 문집 발간을 축하하며

존경하는 김선미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세종학교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 여러분!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룬 세종학교에 디트로이트 한인회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찬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문화의 특징을 얘기할 때 과거에는 멜팅팟 (Melting pot) 에 비유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내용물들이 한데 섞여서 녹은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연히 각 내용물들의 고유한 모습과 특성은 전체속에 녹아버려 알아볼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미국을 샐러드보울 (Salad bowl) 로 표현합니다. 샐러드에 담겨있는 각 재료들의 모습과 특성은 전혀 변하지 않지만 하나의 그릇에 담아 놓으면 전체적으로 다른 모습이 되며 새로운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이민을 온 세계 각국의 국민과 민족들이 모여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민자들은 각기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 민족일 지라도 자신들만의 언어와 풍습 및 전통 문화를 계승하며 발전시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역시 100여년의 미국 이민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우리 말과 문화를 보전하며 미국 속에 주요 소수 민족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공식 지정할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로 선출된 김용 박사는 자신의 뿌리가 대한민국임을 자랑스럽게 말했으며 오바마 정부 초기에 교육감으로 임명된 미셸리 씨도 자랑스런 한국인의 후손이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 교육, 체육, 문화 등 전 전 분야에서 우리가 그 민족적 뿌리를 함께 하는 이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이끌어가고 있음을 대할 때마다 마음 뿌듯하며 여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때 세



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불과 반 세기만에 세계 교역량 10위권의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하였습니다.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는 건국 이래 최초로 세계 5위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인의 주목속에 한류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그 절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방송국마다 앞다퉈 방송을 내보내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국어 배우기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시간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 한국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학입학을 위한 SAT 시험에도 한국어 과목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종학교 학생 여러분, 비록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엄연히 한민족의 후예들입니다. 우리에게 자랑스런 한글과 모두가 부러워하는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을 등한 시 한다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질 것이고 오래지않아 사라지게 될 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서툴지만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문화와 전통을 익히는 것이야말로 우리 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찾는 첫 삽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 저를 비롯한 디트로이트 한인회 임원진 모두는 격려와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며 열과 성을 다해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 회장 | 최희영

세종학교 한해를 마무리 하며...

Long Lake를 거쳐 세종학교가 위치해 있는 Lasher 로 가는 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시간 길 중의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고목들로 빼곡히 채워진 그 길목에 펼쳐지는 사철 풍광을 즐기는 것은 세종학교에 가면서 만끽할 수 있는 커다란 즐거움이지요. 그 가로수 나무들에 울긋불긋 단풍이 들었었고 소복히 하얀 눈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새초롬한 봄 기운이 돌아나면서 세종학교 한 학년이 끝나게 되었네요. 처음 세종학교 학부모 회장을 맡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무거운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한 학년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에 약간 섭섭한 마음마저 듭니다. 지난 해 학부모 회장 제의를 받았을 때 모든 학부모님들이 두려워 하시는 것처럼 책임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매우 망설였지요. 특히 매주 토요일 세종학교에 와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세종학교 선생님, 학생들, 어머님들과 가까워질 기회가 되었고 이제야 세종학교의 한 식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세종학교라는 곳이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타국 생활에서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십여년을 세종학교에 아이를 내려놓고 도망치 듯 사라졌던 제가 너무도 부끄럽게 느껴졌고 학교에 감사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돌아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매주 토요일 자리를 지키면서 터득한 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의 엄마가 세종학교에 남아 간식을 챙기는 날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학년, 나이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엄마가 학교에 남아 있는 날은 싱글벙글 더욱 더 활기 차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놓고 살며시 가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살짝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학교에 남으셔서 자녀들에게 얼굴을 보여주면 아이들 어깨에 힘이 팍팍 들어간다고 말이죠. 아무쪼록 앞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고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씀해 주신 김선미 교장선생님과 부족한 저를 대신 해 자리를 채워주신 부회장 양선경, 총무 이은정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학교 교사진



교장 김선미



토끼반 유운정



나비반 최희재



개나리반 김춘예



매화반 홍지애



정선진 선생님



난초반 원운경



무궁화반 노정환



장미반 윤희란



해반 한은영



달반 안태정



정화현 선생님



별반1 문혜민



별반2 박지영



신입반 엄선규



색동반 유정욱



종달새반 오금주



무용 윤경운



사물놀이 엄지현



태권도 김재영



음악 김혜준



세종학교 연혁

1대 교장 김신형(1972~)-1972년 3월4일 세종학교 개교, 1회 학예회 및 야유회 (1972/6)



2대 교장 이돈희(1973~)-세종소식 1호~4호 발행



3대 교장 이용선(1974~)-어린이 잡지 1호~4호 발간, 극동축제 참가



4대 교장 김현태(1976~)-세종캠프 시작, 선명회 합창단 공연(1977/9)



5대 교장 박현자(1978~)-비영리 단체 등록(1978/4)

제1회 세종세미나 개최(1978)

제2회 세종세미나 개최(1979)

세종학교 교가 제정(조규홍 작사, 박재훈 작곡, 1981/3)



6대 교장 이춘재(1982~)

Camp reunion 시작

PSAT, SAT반 신설

교사 이전(Westminster Church에서 Southfield의 Birney중학교로- 1983년

동부 캠퍼스 신설(연합 감리교회)- 1983/1

세종학교 주최 “박인수 독창회”- 1983/2

동부 캠퍼스, Troy의 Boulan Park 중학교로 이전 1983/9

청소년을 위한 추석파티 시작 1983/12

Southfield Festival에 참가 1985/5

서부캠퍼스 Lathrup 고등학교로 이전 1985/9

세종상 신설(3명 수상) 1985/10

동서부 합동 수업 및 성탄 파티 1985/12



7대 교장 남영림(1986~)-

Boulan Park 중학교로 동서부 캠퍼스 통합(1986/1)

장로교 문화학교와 공동 세미나 개최 (강사: 김유미, 오현주 선생)(1986)

입양아 부모를 위한 강좌(5주), 교기, 뺏지 만들.(1986)

세종소식 속간(제 5 호), 년 2회 발간 (1986)

개교 15주년 기념식 및 행사(1987)

Korean Symposium에 참가 박물관 견학(1987)

창립 15주년 기념회지 발간(1987)

대학 진학 세미나(강사: 김주희박사) (1987)

세종학교 주최 “이대육, 문용희 교수 부부 피아노 연주회(1988)

세종 Quilt완성, 세종 문집 1호 발간 (1988)

봄맞이 음악잔치(이대육, 문용희, Fu Wang, O. Carman, 정한희)(1989)



세종학교 연혁

1회 태극마을 방문 새해인사(1990)
개교 20주년 및 삼일절 기념식
(1992)

미시간 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발족
(1992)

세종 예술제개교 20주년 기념회지 발
간. 이야기 대회 시작(1992)

글짓기 대회 시작(1993)

국악의 향연(1994)

한국 가곡의 밤(이지연,최하진)
(1996)

SAT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1997)

세종25주년 기념지발간 (1997)

동요부르기 대회시작 (1997)

기금모금 역사의 밤(John Duncan교
수)(1998)

세종소식30호(1999)

모금파티-역사의 밤(강만길,박경재 교
수)미시간골프협회 기금 (1999)

가곡의 밤(정연목,김수연)(2000)

제24회 모금파티 가곡의 밤-정연목,배
일환(2001)

불란중학교 교사 점심대접 예술제(
세종학교의 하루) (2002)

30주년 기념지 발간(16호문집)
(2002)



8대 교장 박경혜(2003~)- 기금모금
친구클럽 시작(2007/9)

학부모 행사-오미령 (2009)-Parent-
ing

교사이전(Boulan Middle에서 Detroit
Country Day school로 2007/9)

개교 35주년 기념문집(2007)

미시간 한국학교의 날 시작(2008)

학부모 초청 재정 세미나 개최(2008)

입양아 설날잔치 참여(2008)

세종 골든벨 대회 시작(2008)



9대 교장 김선미(2009~)-기금모
금 행사(이대욱 박사 가족 음악회)
(2009/9)

청와대 푸른누리 어린이 신문 기자 로
세종학교 학생 참여 시작(2009)

난타 시작(2009)

학부모 교실-자녀를 위한 글짓기 수업
(2009)

기금모금 행사(무용극 선녀와 나무꾼
2010/9)

학부모 교실 (재정 생활도움주기.코메
리카뱅크 2010)

개교40주년 기념 기금모금 음악회(장
수진, 김미현, 김혜준, 김용민, 정인
숙, Becca Shipan)와 동문 스티브 연
초대 (2011/9)

청와대 푸른 누리 어린이 기자(최하영,
김남효,김지환,이수지 2011)

K-Rise Club 시작(2011)

학부모 교실(천연 화장품 만들기 합도
은 .2012)

개교40주년 기념문집 발행(2012)

고려대학교 썸머캠프 장학금 지급
(2012)-최원형 참여

Univ. of Michigan 의 제1회 Korean
Quiz Bowl 참여 (고등부 1등 중등부
1,2,3등 수상. 2012/5)





토끼반 선생님 | 유윤정

작년 여름 세종학교에서 제일 어린 토끼반을 맡게 되었을때 교장 선생님의 당부는 우리 아이들이 세종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얼 준비해가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 늘 고민하다보니 어느새 일년이 훌쩍 갔네요. 그동안 토끼반 수업을 좋아하고 열심히 따라와준 친구들. 우리 말이 어려워서 눈 뚱그랗게 뜨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나 귀기울이던 친구들. 수업시간에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아 집에 돌아가 더 고민하게 만들던 친구들...

모두 모두 사랑하고 우리 토끼반 친구들이 있어서 참 행복했던 일년이었습니다.

벌써 그사이 본인의 이름도 잘쓰고 처음 만났을때의 그 아기같은 모습보다 한층 의젓해진 아이들을 보면서 절로 엄마미소가 지어지네요. 아마도 평생 기억할 소중한 얼굴들이지 싶습니다.

토끼반 친구들

김도희, *김선규, 김초연, 박문영, *박성현, 박은해, 송예준, 송예지, 송재우, 심대현, 심이안, 원준섭, 이종민, *채민규, 윤수은, 최재원, **최신명, **Natalie Yee, **이승주



토끼반 문집 모음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박문영**

토끼반 이름

1. 토끼반에서 좋아하는 친구는 **송예지**
2.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분홍**
3.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백김치**
4.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인어공주**
5.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1**
6.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
7. 장래 희망은? **엄마**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반 이름 **박은하**

1. 토끼반에서 좋아하는 친구는? _____
2.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파랑**
3.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초콜릿**
4.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인어공주**
5.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_____
6.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
7. 장래 희망은? _____



토끼반 문집 모음

◎내얼굴



◎내얼굴



♡ 몇 개씩 있을까요? ♡
 눈 - (2) 코 - (1)
 입 - (1) 귀 - (2)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Chris

토끼반 이름 송예준

1. 토끼반에서 좋아하는 친구는? 심대현
2.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파랑
3.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잡채
4.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자동차
5.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1
6.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고끼리
7. 장래 희망은? 축구선수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토끼반 이름 송예지

1. 토끼반에서 좋아하는 친구는? 박문영
2.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분홍색
3.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
4.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뽀뽀왕형
5.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100
6.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기린
7. 장래 희망은? 의사



토끼반 문장 모음

반 이름 원준서

내 얼굴

♡ 몇 개씩 있을까요? ♡
 눈 - 2 코 - (1)
 입 - (1) 귀 - 2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토끼반 반 이름 원준서

1. 토끼반에서 좋아하는 친구는? 최재원
2.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금색
3.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카로니
4.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비이볼레이드
5.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5
6.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원숭이
7. 장래 희망은? 화가

내 얼굴 송재우

♡ 몇 개씩 있을까요? ♡
 눈 - 2 코 - (1)
 입 - (1) 귀 - 2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송재우

토끼반 반 이름 _____

1. 토끼반에서 좋아하는 친구는? ?
2.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금색★
3.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
4.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반자고
5.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1000
6.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코끼리
7. 장래 희망은? 과학자



토끼반 문집 모음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토끼 반 이름 김초연

1. 토끼반에서 좋아하는 친구는? 박은혜
2.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분홍
3.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저리란
4.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퍼즐
5.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2
6.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
7. 장래 희망은? 가수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토끼 반 이름 오선

1. 토끼반에서 좋아하는 친구는? 심아연
2.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핑크색
3.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너겟
4.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아기인형
5.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1000
6.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
7. 장래 희망은? 공주



토끼반 문집 모음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심대현
 JONAT
 토끼반 이름 HAWI

송영준
 송영지

1. 토끼반에서 좋아하는 친구는?
2.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파랑
3.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파스타
4.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카스
5.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100
6.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기린
7. 장래 희망은? _____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토끼반 이름 심이안

심이
 유이

1. 토끼반에서 좋아하는 친구는?
2.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초록
3.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면
4.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퍼즐
5.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1
6.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호랑이
7. 장래 희망은? 경찰아저씨



토끼반 문집 모음

◎내얼굴



♡ 몇 개씩 있을까요? ♡

눈 - 2 크 - 1
 입 - 1 귀 - 2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반 이름

1. 토끼반에서 좋아하는 친구는? 민규
2.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빨강색
3.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밥
4.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마리오
5.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1
6.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토끼
7. 장래 희망은? 피아니스트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김도희

반 이름

1. 토끼반에서 좋아하는 친구는? [scribble]
2.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분홍색
3.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밥
4.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광이 변형
5.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1
6.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토끼
7. 장래 희망은? 공주님



토끼반 문장 모음



반 이름 최재현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토끼 반 이름 최시명

1. 토끼반에서 좋아하는 친구는? 모두
2.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오렌지
3.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당근
4.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자동차 (스포카)
5.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30
6.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토끼
7. 장래 희망은? 음악가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토끼 반 이름 최재현

1. 토끼반에서 좋아하는 친구는? _____
2.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Blue
3.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Ramen
4.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toy block
5.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6
6.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cheetah
7. 장래 희망은? Soccer player



한미반 문집 모음

내일꿈 이승주



♡ 꽃 개학 있을까요? ♡
 보 - () 코 - ()
 입 - () 귀 - ()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반 이름 _____

1. 도끼반에서 좋아하는 친구는? _____
2.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_____
3.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분홍색
4.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가리개
5.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4
6.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다람쥐
7. 장래 희망은? 어른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반 이름 Natalie

1. 도끼반에서 좋아하는 친구는? 마자
2.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분홍색
3.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생선
4.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바비
5.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9
6.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나비
7. 장래 희망은? 가수



나비반 선생님 | 최희재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항상 설레
 임 입니다. 아마도 제가 나비반
 을 처음 만나던 그때, 그 마음도 그랬
 나 봅니다. 초롱초롱 빛나는 친구들의
 눈망울은 나비반 말고 있는 저를 항
 상 행복하게 합니다.

조잘조잘거리는 참새들처럼 한국어
 를 배우고 익히며 아직 손에 익지 않
 은 한글이지만 글씨를 써가며 노력하
 는 나비반 친구들이 날마다 성장해 가
 는 모습은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아직도 한국어공부는 힘들고 쉽지 않
 지만 새 낱말을 접하면 한글자 하나
 하나 읽느라고 찌푸려지는 콧등도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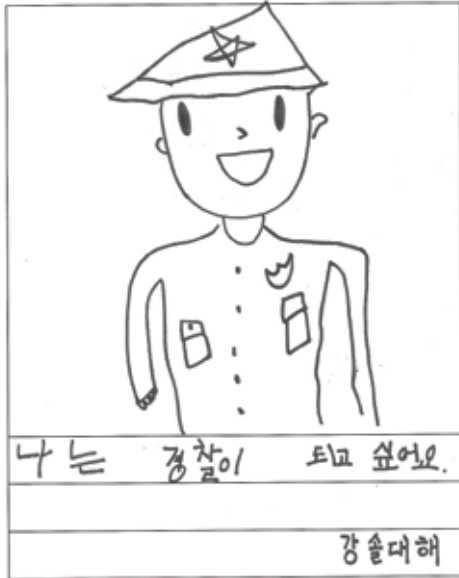
냥 귀엽고 가끔은 어눌해 지는 발음
 에도 마냥 웃음이 납니다. 그렇게 하
 루하루를 지나고 이제 제법 글자를 읽
 어가는 모습은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
 럽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나비반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빛나는 봄날의 햇살
 처럼 나비반 친구들이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비반 친구들 (*결석)
 최자은, 김한영, 한준혁, 조진아, 최유
 진, 리야 Fukumori, 김찬영, 최연주, 신비
 Putsey, 김이안, 김래오, 강솔대해, 조은
 기, 권민재, 김연후, 신서인, 박제인, *문
 혜림, *박태영, *윤지환, *헤이즐 Strain



나 비 반 문 장 모 음





나비반 문집 모음





나 비 반 문 장 모 음





나 비 반 문 장 모 음

나는 커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을 도와
 주려구요 윤지환

인어공주
 나는 인어공주가 되고 싶어요.
 조은기 Angie cho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조진아

나는 태권도
 사범님이 되고 싶어요
 한준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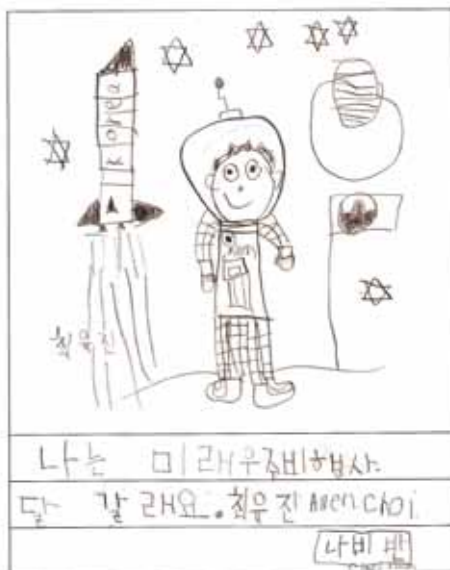


나 비 반 문 장 모 음





나 비 반 문 장 모 음





개나리반 선생님 | 김초예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웃으며 재미있게 공부하려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학생들과 매주 우리 아이들을 챙겨주신 부모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에겐 올 한 해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 특별하고 보람 있었던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즐겁고 재미있었던 한해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세종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싹이 자라 커다란 나무가 되듯이 우리 아이들도 이곳 세종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자라 이곳 미국에서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나리반 친구들

배은서, 김혜진, 최서원, 박하율, 최민지, 지혜 Burkhardt, 예진 Kovie, (최윤혁)



개 나 리 반 문 장 모 음

제목: 동물병원의사 이름: 배우시
 나는 개사육업자의 의사가 될거예요
 예쁜 동물들이 아프지 않게 도와주고
 치료도 해주고 싶어요.

제목: 강아지 이름: 부귀영
 나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강아지는 귀엽고, 그리고 나를
 놀아줘요. 아빠, 엄마랑 하얀색
 강아지 사기 가고 싶어요.

제목: 강아지 이름: 예진
 나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강아지는
 귀여워요 두 살 때부터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엄마, 아빠가 강아지를 사주셨
 으면 좋겠어요.

제목: 나는 강아지가 좋아 이름: 최원홍
 강아지와 함께 시카고로 여행 가고 싶어요.
 강아지와公園에서 산책도 하고 여름에는
 물놀이도 할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나눠먹고 싶어요.



개 나 리 반 문 집 모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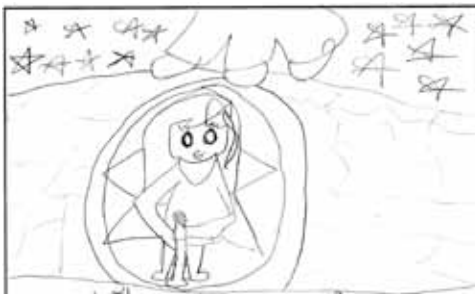
제목: 자전거 이름: 최민지

언제나 우리가 다 사모양
 등과 공원으로 스포츠를 가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너무 자전거타기를 좋아해요.
 자전거타기는 정말 재미있어요.



제목: 꿈 이름: 신유리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매달 재미있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숫자공부도 하고, 노래
 도하고, 재미있는 게임도
 같이하고 싶어요.



제목: 노래 이름: 선원

저는 어른이 되면
 노래 하는 가수가 되고 싶
 어요. 나는 노래 부르는 게 좋아
 해요. 텔레비전에서도 노래
 싶어요.





매화반 선생님 | 홍지애

참 오랜만에 나비반을 떠나 매화반으로 옮겨 왔습니다. 2년 전 나비반 때보다 훨씬 키도 자랐고 많이 의젓해져 있는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다시 만난 친구들도 있고 새로 만난 친구들도 있지만 곧 서로 어울리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문집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든 학생들과 다시 헤어지는 시간이라는 의미지요. 앞으로 쭉쭉 커 나갈 모습을 생각해 보면 섭섭함과 더불어 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솔푸른, 주원이, 일문이, 홍주, 다영이, 은준이, 윤아, 진이, 시우, 소정이, 진영이, 찬민이, 수민이, 민혁이, 수혁이, 지

석이, 예찬이. 그리고 사정상 중간에 헤어지게 된 빛나, 캐서린, 지성이. 모두들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일년동안 열심히 자녀들을 세종학교로 보내시며 도와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화반 친구들 (*결석)

한수혁, 강솔푸른, 고준원, 정찬민, 유진, 지석 Burkhardt, 박은준, 이진영, 최민혁, 김홍주, 김다영, 김일문, 조수민, 예찬 Kovie, 오윤아, 윤시우, *이소정



배 화 반 문 장 모 음



이소정 >작
 1학년 미술반 2012년 12월 25일

오늘은 크리스마스다. 사탕하아 버지께
 밤은 선물이 뭐지 기다렸다.
 내가 * 갖기 싫은 것은 안
 받았단. 하지만 선물은 많이
 재밌었다. 받은 것은 디자인 키
 이었다. 어니랑 같이 봤다.
 많이 재밌었다.



이진연 >작
 1학년 미술반 2012년 12월 25일

저는 꿈꿔다에 있습니다.
 꿈꿔다에서 신이래만 꿈을 봤습니다.
 꿈꿔다의 꿈을 봤습니다. 다른 가족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퍼레이드를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꿈꿔다에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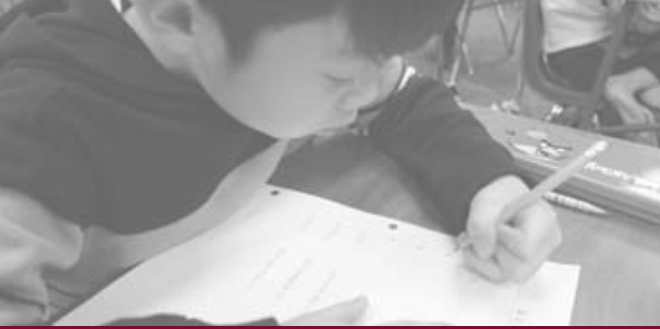
최연호 >작
 1학년 미술반 201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친구들과 가족과 보령마루에
 가서 스키를 타습니다. 곤도에서 친구들과
 같이 밥도 먹고 티비도 보고 게임도 했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눈온구에서 나는유때
 모서릴지만 많이 재미있었습니다.
 열살이 되면 스노우보드를 타고 싶습니다



박준 >작
 1학년 미술반 2012년 12월 25일

나는 겨울방학 때 너에 갔다.
 아메리칸 필 인출을 샀다.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디즈니랜드에 갔다.
 너즈라이트가 제일 재미있었다.
 라스배가스 에도 갔다. 쇼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다
 예주이와 나는 해변에서 재미있게
 놀았다. 또 가고싶다.



매 화 반 문 집 모 음


 주제: 자유의 여신상
 2022. 2. 28

Now we start the plot!



Now start the plot!



나는 자유의 여신상에 대해 공부하고 Statue of Liberty 도 봤다 리아도 친구랑도 봤다. 나는 리아도 친구랑 Statue of Liberty 도 보러 갔어 리아도 친구랑. 리아도 친구랑 Statue of Liberty 도 보러 갔어 리아도 친구랑. 리아도 친구랑 Statue of Liberty 도 보러 갔어 리아도 친구랑. 리아도 친구랑 Statue of Liberty 도 보러 갔어 리아도 친구랑.


 주제: 기석
 2022. 2. 28



내가 겨울방학 동안 가장 좋았던 일은 내 동생이 해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주제: 대화
 7/1 문
 2022. 2. 28



나는 피닉스 시어울 22-26 에 시카고에 갔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우리 수컷집이 있는 호텔에 머물렀어요. 매일 수영을 했어요. 박물관에 가서 피카소 그림도 보고, 스프레이 아트도 봤어요. 나는 시카고 가이든 도시에 사는 것이 좋아요.


 주제: 마중
 한석
 2022. 2. 28



크리스마스 날 할머니 집에서 가마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 상자들이 있었다. 나랑 순희랑 선물들을 열었다. 내가 좋아하는 레고가 들어 있었다. 우리는 레고를 만들어서 재미있게 놀았다.



배 화 반 문 장 모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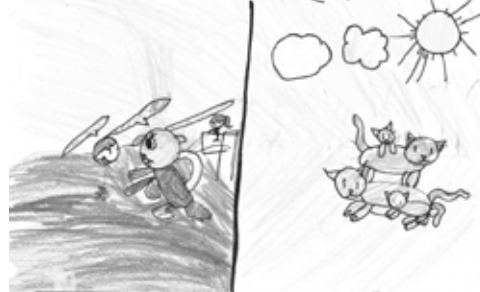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박정희 20살 1974년



우리 가족은 겨울이 되면 미사간 동굴
으로 스키 여행을 갑니다. 이번 방학
에도 다들 가족과 함께 스키 여행을
가 습니다. 나는 스키가 너무 재미있 습니다.
리프트를 타면 눈이 눈이 무라
같 습니다. 재미 있 습니다. 나는
리프트에 서 내릴 때 눈이 떨어
습니다. 그래도 나는 스키가 참
재미 있 습니다. 내년에도 또 스키를
탈 것 입니다.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박정희

10살 1974년



내가 고양이를 좋아해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재미있고
귀여워요. 고양이가 가끔씩 나를 부르
여요.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박정희

10살 1974년



나는 레미랑다술어할 술리 언버를 해
습니다. 레미랑다술어할 술리 언버를 해
어니언 씹을 이 어서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영화를 봤 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클레어에서 구디백을 골라 습니다.
다 고로 레미랑다술어할 술리 언버를 해
다래미 언버네 집에서 두레 스토업고
놓았 어요. 너무 재미 있 어서 늦게 자고
보았 지만 시간 이 늦 어서 거 하실 에서
잠을 잤 습니다.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박정희

10살 1974년



크리스마스 다운 나 시카
고어 있는 레미랑다술어할
갔 다. 미치 미치 레미랑다술어할
근 당할 해 다운 레미랑다술어할
반어요. 다운 레미랑다술어할
침근 가 서 레미랑다술어할
반어요. 서클 다 섹터
재미 있 어요. 레미랑다술어할
어요. 레미랑다술어할 재미 있
어요!



매 화 반 문 집 모 음

매화반 김주하

내 크리스마스 때 게임기를 선물로 받았어요.
게임기를 가지고 캐나다 친구와 놀았어요.
캐나다 할머니 집에 새배하고도 놀았어요.

매화반 조수민

겨울방학때 가족들과 스키장에 갔어요.
스키를 처음 타서, 스키 강습반에서 배웠어요.
선생님과 친구들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키를 배웠어요.
하루도 안 쉬고 재미있었어요.
리프트도 탔어요.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스키 타는 것이 좋아서 스키가
재미있어요.
내년에 또 가고 싶어요.

매화반 김수민

나는 진짜 재미있는 방학을 보냈습니다.
눈 속에서 사냥이 놀러 왔어요.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난초반 선생님 | *원은경*

작년 가을 개학식 날, 또 어떤 개구장이 들을 만날까 하는 궁금함과 설레는 마음으로 책상에 이름표를 놓으며 새로 만나게 될 친구들의 이름 외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수줍게 인사하며 들어오는 예쁜 여학생들, 그리고 쑥스러운 듯 인사하며 들어오는 남학생들...그 동안 항상 남학생들이 많았던 터라 여학생이 더 많은, 뭔가 조용한 분위기에 처음엔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야! 이젠 내 큰 목소리를 사용할 일도 없겠구나.'하며 혼자서 쾌재를 불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몇 주가 지나자 우리 꼬마 아가씨들도 그 작지만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저에게 다가와 쉴 새 없이 재잘거리기 시작했고, 남학생들도 여학생들에게 질세라 뿔뿔 뭉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초과정을 모두 마치고 초급과정의 첫 관문인 난초반에 들어온 아이들은 조금 더 진지해진 수업 분위기, 어려워진 한국어 공부, 엄격해 보이는 새로운 선생님 때문에 처음엔 당황해하는 것 같았지만 서로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수업 시간은 항상 웃음이 그치지 않았고 그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아이들에게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문법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눈을 반짝일 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이 점점 길어질 때, 배운 단어들과 문장을 적절히 사용하며 말하려 노력할 때, 친구들과 사이좋게 팀을 이뤄 활동할 때는 저는 새 힘을 얻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준 귀중한 선물입니다. 정말 하나하나 다 풀어 놓으면 끝이 없을 것 같은 추억의 시간들이 어느새 곱게 수놓아져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족한 선생님이지만 언제나 믿고 따라와 준 우리 난초반 친구들, 나연이, 남혁이, 준기, 지니, 서균이, 가희, 지민이, 희현이, 수연이, 준수, 예준이, 세은이, 재현이, 하나, 하민이에게 저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을 주신 부모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져서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한국과 미국 사회에 모두 기여하는 지혜롭고 멋진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난초반 친구들

김준기, 이희현, 배재현, 박준수, 김남혁, 신서균, 한희원, 이가희, 고석준, 박하민, 송지나, 이지민, 김나연, 박예준, 배세은



난 초 반 문 장 모 음

나

난초반 이름 김삼현

내 이름은 김삼현이에요. 나는
여덟살이에요.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핀란드어 노래를 좋아해요.
나는 가장이랑 산어요. 나는 우리
반장이 좋아요.

나

난초반 이름 김나연

나의 이름은 김나연이고 여덟 살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볶음밥이에요.
나는 친구가 많아요. 그중에서도 Chloe 란
가장 친해요. 나는 놀면서도 좋아해요.
그리고 레고도 좋아해요. 나는 실험하기를
제일 좋아해요. 나는 키가 크지 않지만
느키 잘 타요. 가장 아끼는, 보물고로는
엄마, 아빠, 내 장래 희망은 과학자
예요.

나

난초반 이름 고서준

나는 8살 고서준입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화가가 되고
싶어요. 나의 기쁨은 친구와 장난감 놀이예요.

나

난초반 이름 송재니

나는 송재니예요. 나는 여덟살이
예요. 나는 엄마와 오리 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그림 그리기를 잘
해요. 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난 초 반 문 집 모 음

나

난초반 이름 이가희

나는 햄랜드 초등학교 삼학년
 이가희 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 하는
 것은 미술입니다. 내가 가장 잘 하
 는 것은 그림그리기입니다. 내
 가 가장 약끼는 보물 1호는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입니다.

나는 커서 미술선생님이 되고 싶습
니다.

나

난초반 이름 이지민

제 이름은 이지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이스크림이고요, 가장 잘하는
 것은 미술입니다. 제 장래
희망 모델입니다. 제 보물 1
호는 제 인형이예요.

나

난초반 이름 박준식

나는 박준식입니다. 나는 여덟살
 이예요. 나는 미식 축구를 좋아
 하고 잘해요. 나의 성격은
활발해요. 나는 미식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나

난초반 이름 배재현

내 이름은 배재현이고여
덟살이예요. 내가 좋아
 하는 음식은 자장면
 이예요. 나는 친구가 아 주 많아요.
 요나는 키가 중간이고요
동을 잘해요. 그리고 자전거
도 잘 타요. 나는 커서
검사가 되고 싶어요!



난 초 반 문 장 모 음

나

난 초 반 이름 박예준

나는 뛰어난 일이다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나는 노래를 아주 잘 불러요. 나의 보물 창고는 엄마 아빠 하고 은둔어예요. 나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나

난 초 반 이름 신서준

나는 신서준 이예요. 여덟 살 일예요. 나는 게임을 좋아해요. 아빠 강 강 퍼프 게임 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비디오 게임을 제일 잘해요. 나는 독독 하고 경향이 되고 집어요.

나

난 초 반 이름 이현현

내 이름은 이현현이고 여덟살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게임 하거예요. 내가 잘 하는 것은 태권도예요. 나의 보물 창고는 동생이예요. 나의 장래 희망은 경찰이예요.

나

난 초 반 이름 한희원

나는 언더펜딩스 초등 학교에 다니요. 저는 학교 에서 바다쓰기를 했어요. 백 점 받았어요! 저는 레벨이 높아요. 저는 친구랑 사이 좋게 놀아요. 저는 동물을 아주 좋아 해요. 저는 요리 하는 것도 좋아 해서 나중에 커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내 보물은 나의 가족이예요.



난 초 반 문 집 모 음

나

난초반 이름 김준기

나는 김준기 이고 여덟살이에요. 나는 수영을 잘하고 키가 커요. 나는 레고를 좋아해요. 나는 의사 나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요. 네 보물은 연필이에요.

나

난초반 이름 배서연

저는 배서연 9예요. 저는 여덟살이예요. 저는 모델, 선생님, 의사 가 되고 싶어요. 저는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스케이트를 잘해요. 저는 키가 크고 뚱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책 읽기예요.

나

난초반 이름 박하민

내 이름은 박하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밖에서 노는 것이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축구예요. 나의 성적을 받고 활발합니다. 나는 성우가 되고 싶어요.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은 우리 가족이예요.





무궁화반 선생님 | 노정환

늘 지나온 나날들을 회상해 보면 빠르게 지나버린 시간들이 신비롭게만 느껴집니다. 또한 자라나지 않을 것만 같던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참으로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무궁화반 친구들도 미소와 웃음과 불평과 장난으로 늘 한결 같은 토요일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분명 아이들속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겐 참으로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아이들이였습니다. 자신의 학습에 집중하는 충직형, 알만큼 안다는 자신감형, 금요일 밤을 너무 피곤하게 보냈다는 노곤형, 물을 자꾸 마시러 가겠다는 물개형... 이 모든 친구들이 어울려 새로운 무궁화반의 웃음과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고 도와 주고 웃음을 주며 무궁화반을 만들어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을 지켜 보는 것이 참으로 즐겁고 기쁜일이겠구나...부모님들이 참으로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또하나의 기억을 만들어준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무궁화반 여러분♥♥.

무궁화반 친구들 (**1학기)
조영민, 최민기, 이상원, 김수진, 정다운,
이준근, 오윤서, 김윤진, 심진희, 윤지윤,
이소현, **임서정, **최종원, **김호진



무궁화반

문집 모음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된다면〉
윤지윤 (무궁화상)

저는 아홉살 윤지윤입니다. 저는 커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프리카를 도와 주고 싶어요. 저는 가끔 TV에서 코이카에 꿈을 봐요. 제 마음은 너무 상해요. 사람들이 고통과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직 어리지만 꿈이 있어요. 제가 꼭 어린이 집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기 위해서 세종학교를 더 열심히 다녀야 해요. 공부도 더 잘 집중하고요. 아프리카는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아프리카를 도와 주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좋은 마음을 갖게 기도할 거예요. 저의 부모님께서 의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좋은 세상이 되길 기도해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프리카를 꼭 도와주세요.

〈내가 어른이 된다면〉
이상원 (아름다운상)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동안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잘 챙겼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길을 잃어 버렸으면 제가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잘 챙겼습니다. 친구가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탈 때 제가 도와 주었습니다. 친구엄마가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도와 줄 때 기분이 좋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사람들을 도와 주고 싶어요. 왜 학교나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여자

선생님이 많을 까요? 저는 남자 선생님을 더 좋아해요. 왜냐 하면 남자 선생님이 남자여서 좋아요. 선생님이 될려면 지금 부터 열심히 해야겠죠? 그건 좀 싫는데... 하지만 학생이 질문을 물으면 대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어른이 된다면〉
김윤진 (고운상)

만약 내가 커서 미술 선생님이 된다면 내가 어려서 배운 것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렇기 위해서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나 지루해 하지 않는 재미있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내가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는 아주 어려서 부터 미술을 좋아했고, 내 생각에는 재미난 것들을 잘 만드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미술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늘 아이들과 즐겁고 재미난 작품들을 가르쳐 주시는 저의 미술 선생님처럼 저도 커서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내가 만약 의사가 된다면〉
이준근 (예쁜상)

저는 어릴 때 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께서는 의사가 될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갈 길이 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아픈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하고 싶어서 입니다. 아픈 것은 겁나고 참기 힘들지요. 아프다가 죽을 수



무궁화반

문집 모음

도 있어요. 내가 만약 의사가 된다면 많이 웃을 거예요. 환자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요. 나는 약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무서운 주사를 안 맞고 먹는 약만 먹으면 되게요. 아픈 사람 아프지 않게 되어 행복하게요. 아이들이 주사를 안맞아서 행복하게요.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되면 나도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조금 걱정이예요.

〈내가 회사원이었으면〉
조영민 (예쁜상)

저는 크면 회사원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회사원이 되면 회사에서 일 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받아요. 운이 좋으면 아빠랑 같은 일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도 좋은 대학을 가야 돼요. 제가 회사원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줄 거예요. 회사원이 되면은 옷도 좋은 옷을 입고 가방도 들고 가야 해요. 회사일은 안 힘들고 안아파요. 회사안에는 진짜 조용할거예요. 회사원이 되면 진짜 행복할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된다면〉
김수진

나는 어른이 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니까요. 나는 재미있는 게임을 많이 만들거예요. 게임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거예요. 부자가 되면 사고 싶은 것이 많아요. 실내 수영장과 야외 수영장이 연결되어 있는 큰 집도 사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 나온 아이폰도 사고 보석도 살 거예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사 먹을 거예요. 나는 컵라면, 중국 음식, 그리고 아주 매운 비빔밥을 좋아해요. 또 공포 영화도 마음껏 보고 세계 일주 여행도 할거예요. 나는 한국, 중국, 영국, 이집트,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인도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 줄 거예요. 돈도 주고, 맛있는 음식들도 사 줄 거예요.

아빠, 엄마에게도 좋은 것들을 많이 드리겠어요. 그리고 나는 멋진 차를 사고 싶어요. 부자가 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누구 처럼 되고 싶을까?〉
김호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 호진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기해 줄게요. 저는 어른이 되면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글쓰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책은 재미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글씨도 쓸수 있어요. 어떻게 할꺼냐 하면요. 학교에서 글쓰기 시간에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글씨가 많이 있는 책을 혼자서 만들거예요. 나이가 25살이 되면 재미있는 책을 만들거예요. 제가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지 궁금하죠?

〈우리 엄마, 아빠〉
심진희

엄마 얼굴색은 하얗고 분홍입니다. 엄마 눈 색은 담갈색입니다. 엄마는 얇은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는 얇은 속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의 눈은 크고 예



무궁화반

문장모음

뽀니다. 아빠 얼굴색은 밤색입니다. 아빠 눈색은 밤색입니다. 아빠는 큰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 눈썹은 두껍고 속눈썹은 짧아요. 아빠는 잘 할퀴는 턱수염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는 큰 이마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는 턱이 네모형이에요.

〈제가 크면 뭐가 될까요?〉
정 다 은

저는 크면 의사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 하면 나는 동물을 좋아해요. 또 동물을 도와 주니까 좋아요. 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엄마랑 아빠를 공짜로 도와 줄 수 있어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도 도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난 의사가 안 되고 싶어요. 왜냐 하면 동물의 아픈 것도 봐야 하고 죽는 것도 보고요. 내가 동물을 죽게도 해야 되니까요. 난 의사가 안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족, 친구,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봐야 되니까요.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되거 싶은지요.

〈내가 만약 펭귄이 된다면〉
최 민 기

내가 만약 펭귄이 된다면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요. 아침에 물고기들을 먹을 거예요. 다음엔 학교에 갈거예요. 그리고 나 학교 끝나고 내 친구와 같이 수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액션 영화를 볼 거예요. 영화가 끝나면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난 책을 봐요. 다음엔 숙제를 할 거예요. 숙제 끝나면 난 잘거예요. 내가 만

약 펭귄이 된다면 퍼핀 펭귄이 되고 싶어요. 왜냐 하면 퍼핀 펭귄은 잘 생겼어요. 그리고 퍼핀 펭귄은 부리가 커요. 그리고 귀여워요. 이것이 내가 펭귄이 되고 싶은 이유예요.

〈어른이 되면〉
최 종 원

만약 내가 돈 많이 있으면 진짜 행복할 거예요. 큰 집을 사서 거기에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놀러 오시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비행기도 타고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어요. 한국도 가고 할아버지랑 할머니께 놀러 가고 싶어요. 진짜 진짜 큰큰큰 TV를 사서 영화 극장 처럼 보고 싶어요. 그리고 텔레스콥 사고 별도 보고 싶어요. 돈이 아직도 많이 있으면 동물을 도와 주고 싶어요. 동물들 밥도 맛있게 해주고 집도 사주고 싶어요. 그러면 동물들이 진짜 행복할 거예요. 인제...돈이 조금 있으면 피자 파티도 하고 싶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그런데 돈을 잘 쓸거예요!! 그냥 다 쓰면 돈이 하나도 잘 써야 돼요!! 나는 돈이 진짜 많으면 잘 쓸 거예요.



장미반 선생님 | 윤희란

세종학교에서 일한지 어느새 6년이 다 되어가는데 장미반은 처음으로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올해 장미반은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 차이가 매우 심해서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힘든 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인 재영이는 작문 실력이 뛰어나 글짓기 대회에서 장미상을 받았고 숙제를 항상 열심히 해오는 진현이와 우리는 주어진 과제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한국어 의사 표현력이 우수한 종은이와 민주는 수업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끌었고 한나와 예은이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모든 학습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독립심이 강한 민우와 사무엘, 밝고 쾌활한 주현이, 항상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는 하늘이를 포함한 장미반 학생들 모두가 세종학교에서 보낸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지난 1 년동안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빙고 게임이나 상황극을 수업 내용에 맞추어 적절하게 활용하였고 때로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그룹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올해 장미반은 학생수가 많지 않아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성취도와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그에 알맞는 지도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장미반 친구들

예은코비, 김민주, 백종은, 김한나, 김하늘, 정사무엘, 김주현, 이진현, 임재영, 조우리, 최민우



장 미 반 문 집 모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독서〉

임재영
(장미상)

사람들은 모두 좋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취미라고 부릅니다. 사람들마다 취미를 한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식축구, 춤, 또는 그림 그리기등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취미는 각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부분이 됩니다. 가끔씩 취미가 한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의 취미는 '책 읽기' 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독서는 사람을 매료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지겹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독서를 '또 다른 세상으로 가기 위한 여권 (Passport)'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을 들고 다른 세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접혀져 있던 이야기들이 흥분과 감동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신비한 나라에 도착했을 때 나는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뛰어가기도 합니다. 특별한 동물이 사는 나라에 도착했을 때는 새로운 동물들과 즐겁게 만납니다. 우리의 이웃이 사는 나라에 도착하면 그들의 인생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독서는 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독서를 통해 엄청난 거 큰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은 어느 나라든지 가고 싶을 때 간단하게 여권만 챙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짐을 싸지 않아도, 돈을 쓰지 않아도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을 언제나 여권만 가지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역사 이야기〉

김한나
(아름다운상)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재미있고 알지 못했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어 과거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똑똑해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여 지금에 이르러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너무도 놀랍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살아왔던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현재 삶과도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졌던 건축물이 그 예입니다. 역사 이야기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대는 고대 로마입니다. 건물이 아름답고 나라가 강하여 미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어 단어의 대부분이 라틴어에서 왔다는 사실도 역사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역사 이야기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책과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역사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알아갈 것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조우리
(고운상)

나는 레고를 좋아한다. 삼학년 때부터 레고로 여러가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레고 선물을 받으면 참 기쁘다. 우리가



장 미 반 문 집 모 음

족은 내가 레고를 좋아해서 레고 선물을 많이 준다. 그동안 나는 레고로 집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었다. 처음에는 작은

오토바이와 레고 시티를 만들어서 놀았다. 지난 여름에는 아주 큰 배를 만들었다. 배의 이름은 테스트니방티이다. 너무 어려워서 아빠가 많이 도와주셨다. 나는 여러가지 레고를 많이 만들고 싶다. 그래서 레고 가게에 자주 가고 싶다. 그 곳에는 새로운 레고가 많아서 쇼핑이 재미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레고 체스를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 내년 여름에는 시카고에 있는 레고랜드에 가려고 한다. 레고로 만들기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복잡한 것도 잘 만들 수 있다. 책상 위에 내가 그동안 만든 레고를 올려 놓고 바라보면 정말 기쁘다. 내가 만든 레고를 가지고 여러가지 놀이를 할 때 정말 재미있다. 레고는 정말 좋은 나의 친구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김민주
(예쁜상)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축구입니다. 삼학년 때부터 축구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축구하는 것을 보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나중에 나도 축구팀에 들어가서 축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처음에 할 때는 다리가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할 때마다 재미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게임을

할 때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넘어져서 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참고 끝까지 게임에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공을 찰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네트에 들어가면 우리 팀이 점수가 올라가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친구들과 서로 격려하는 것도 알게 되고 한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할 때 우승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최고의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축구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백종은
(예쁜상)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토끼입니다. 우리 학교에 토끼가 있는데 이름이 헨리입니다. 나는 헨리가 너무 귀엽습니다. 특별히, 헨리는 잘 때가 제일 귀엽습니다. 나는 헨리에게 밥도 주고 돌봐줍니다. 헨리는 까만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습니다. 아침에 헨리를 밖에 내놓습니다. 밖에서 토끼 우리를 만들어 장난감이랑 같이 토끼를 넣어 줍니다. 오후가 되면 토끼를 다시 안으로 가져 갑니다. 가끔 나는 토끼를 안아서 가져 갑니다. 방학이 되면 헨리를 집으로 데리고 와도 됩니다. 나는 추수감사절 방학때 토끼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다른 친구가 가져가도록 하셨습니다. 방학이 되기 전에 교실에 있는 토끼 우리를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방학동안 헨리가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언니 교실에도 토끼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언니가 방학때 데리고 왔



장 미 반

문 집 모 음

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길어서 다른 사람에게 토끼를 줘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끼를 데리고 간 집에서 토끼를 차로 치어버렸습니다. 나는 너무 슬펐습니다. 다행히 선생님께서 다른 토끼를 가져오셨습니다. 나는 토끼를 한 마리 기르고 싶은데 아빠가 앨러지가 있어서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토끼를 볼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나는 토끼를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겨 스케이팅〉
예 은 코 비

나는 피겨 스케이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스케이팅 코치에게 레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툼툼히 스케이트장에 가서 연습합니다. 가끔씩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통해 아이스쇼를 보며 힘을 얻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는 김연아입니다. 제일 처음 김연아 선수를 본 것은 몇년 전 동계 올림픽 때였습니다. 007 영화 음악에 맞추어 멋지게 아이스 스케이팅을 하는 김연아 선수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도 김연아 선수처럼 멋지게 피겨 스케이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을 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이 진 현

나는 레고를 참 좋아해요. 레고로 무엇이든지 만들수 있어요. 상상력만 있으면

비행기, 자동차, 우주선, 그리고 칼 등 여러가지를 만들수 있어요. 나는 어릴때부터 레고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생일 때마다 레고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는 할아버지께서 스타워즈 우주선을 사주셨어요. 혼자서 며칠을 걸려서 만들었어요. 동생들이 가지고 놀고 싶어하지만 부서질까봐 절대로 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레고 로봇 클럽에 참가해서 멋진 레고를 많이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난감은 레고인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
김 하 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얼음 충격’입니다. 이 책은 M.G. Harris 가 썼습니다. ‘얼음충격’은 미스터리 장르에 속하지만 ‘action’ 장면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에서는 칼로 싸우는 장면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등산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바로 등산 장면입니다. 등산을 하는 과정과 자연 재해에 대한 생생한 묘사때문에 나는 이 책에 매료되었습니다. 나는 이 책의 주인공인 조쉬가 Itzanna 의 팔찌를 받았을 때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정 사 무 엘

나는 수박을 제일 좋아합니다. 수박을 좋아하는 이유는 달고 맛이 있기 때문입니



장미반 문집 모음

다. 수박은 물이 많아서 주스같기도 합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 여름에는 수박이 더 맛있습니다. 나는 가끔씩 수박을 믹서에 갈아서 수박 주스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수박을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 과일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김주현

나는 컴퓨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재미있고 쓸모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는 youtube에서 보고 싶은 비디오풀 수 있다. 나는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숙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web site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때 컴퓨터는 언제나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컴퓨터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최민우

나는 레고를 좋아한다. 레고를 좋아하는 첫번째 이유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는 주로 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첫번째 레고 세트를 가지게 되었던 4살, 혹은 5살때부터 레고를 좋아했다. 지금은 23개의 레고 세트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레고 세트는 “Star Wars”이다. 레고를 좋아하는 두번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레고 보드때문이다. 나는 battle field, 집, 공항

이외에도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다. 그중에 어떤 것은 물에 뜰 수도 있다. 나는 레고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수도 있는데 아마도 내가 레고를 아주 잘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레고를 좋아하는 마지막 이유는 레고 게임때문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레고 게임은 “Star Wars: The Complete Saga”이다. 이 게임외에도 “Lego City” 나 “Lego Battles” 같은 많은 다른 게임들이 있다. 끝으로 나는 Lego Model Master를 만나서 레고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해반 선생님 | 한은영

여느 해보다 두 달여 앞서 행해지는 세종예술제 때문에 올 한해는 더욱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2학기 시작하자마자 문집을 만들고, 예술제를 준비하는 마음이 바쁘기만 합니다.

3학년 난초반에 이어 해반까지, 두 번 이나 맺게 된 올해 해반 친구들과의 인연은 아주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새로 세종학교를 시작하게 된 몇몇 친구들이 처음에는 어색해 하다가, 자연스럽게 기존의 해반 친구들과 하나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교사를 믿고 열심히 공부해준 해반 친구들과 뒤에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부모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덕분에 일년 동안 여러분의 교사로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즐겁고 보람된 세종학교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 바랍니다.

해반 친구들 (*결석)

정여진, 김소영, 이준오, 김지환, 정운모, 박태정, 최윤희, 이준형, 권서은, 백시연, 김래아, 김남효, 유수민, 원준희, *조하진



해 반 문 집 모 음

〈백 시 연〉

(해상)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백시연입니다.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의사놀이를 좋아했고,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넘어져서 얼음을 봉투에 넣고 친구의 머리를 찜질해 주었어요. 그러자 친구가 저에게 의사 같다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기분이 아주 좋았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과학도 흥미가 없고, 피를 보는 것도 싫어서 의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친구한테 “너는 의사 같아.”라는 말을 들으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어떤 약을 먹어야 할 지 알아야 해요. 또 대학교 그리고 메디칼 스쿨을 졸업해야 해요. 또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면 의사가 된다고 아빠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되려면 이렇게 어려워요. 하지만 어려운 일들을 하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이 길을 꼭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의사가 될 거예요.

〈원 준 희〉

(아름다운 상)

나의 꿈은 동물원 사육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동물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사육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동물들을 건강하

게 키워서 예쁘게 보이게 할 거예요. 내가 사육사가 되면 펭귄과 돌고래, 그리고 코끼리를 돌볼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주 좋아하는 펭귄 인형이 있었어요. 그 펭귄인형은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놀아서 다 더러워지고 헤어졌어요. 지금은 펭귄인형이 세 마리가 있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지요. 그런데 나는 인형보다 진짜 펭귄이 귀엽고 매끄러워서 더 좋아요. 내가 사육사가 되면 나는 내 펭귄들을 인형처럼 더럽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돌고래가 우아하고 재롱돌이라서 좋아요. 돌고래들은 사람과 놀기 좋아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코끼리가 귀엽고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요. 코끼리는 다른 코끼리가 죽었을 때 울 정도로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코끼리를 좋아해요. 하지만 동물 사육사가 되려면 많은 노력과 지식, 그리고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동물에 대한 책을 읽고 동물을 보살피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동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보고, 고등학생이 되면 동물원으로 자원봉사도 나갈 거예요.

이것이 내가 커서 동물원 사육사가 되고 싶은 이유예요. 나는 항상 재롱을 부리는 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정 여 진〉

(고운상)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수의사가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갖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개



해 반 문 장 보 음

에 대한 앨러지가 있어서 어쩌면 이 꿈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수의사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두 가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앨러지를 없애기 위해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되고 싶은 꿈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한다 말해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면 기회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 윤 모〉
(예쁜상)

나의 꿈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되는 것입니다. 발명가가 되어서 세계 최초의 최첨단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발명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연구소에서 일하고 싶고, 가장 위대한 연구원들과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로봇 발명가가 되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더 좋고, 더 편한 생활을 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 차 사고, 혹은 태어날 때부터 불편한 몸으로 사는 것이 많이 봤습니다. 나는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만드는 로봇이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대한 발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하겠습니다.

〈김 지 환〉
(예쁜상)

나의 꿈은 우주비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도 Neil Armstrong처럼 Neil입니다. 나는Neil Armstrong처럼 되어서 아직은 달밖에 사람이 가지 못했지만 화성, 금성을 제일 먼저 가보고 싶습니다. 우주 여행을 하면서 다른 별의 사람도 만나고, 지구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려줄 겁니다. 또 거기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도 배우고, 지구에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친구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만들고 할 겁니다. 중학교에서는 사이언스 클럽에 들어가서 실험도 해 보고, 별들에 대해서도 더 배우고, 대학교에 가서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주비행사가 된다면 전세계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내 꿈을 얘기해주고 나처럼 우주비행사가 되려는 친구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겁니다. 아이들과 같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면 더 신나는 여행이 되겠죠? 하지만 우주여행은 신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주선이 폭발해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훈련을 하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 우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나는 과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축구도 열심히 합니다. 또 Cedar point에 가서 Dragster



해 반 문 집 모 음

같은 놀이기구도 잘 탑니다. 지금은 지구에만 사람이 살지만 나중에는 스타워즈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면서 별나라를 다니는 세상을 만들 겁니다.

〈최 윤 호〉

나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여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고 싶다. 내가 만일 그것에 대해 모른다면 공부하고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자료와 그림들을 보여주어 아이들이 좋아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서 시험도 보게 할 것이다. 특히 내가 원하는 학년은 7학년 또는 8학년이다. 왜냐하면 어리지도 않고, 저학년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직업은 내가 커서 꼭 하고 싶은 일 중의 하나이다.

〈김 래 아〉

나는 커서 Dr. Seuss나 E.B.White, 또는 J.K. Rowling과 같은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작가들의 책은 마치 내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읽는 사람들을 빠져들게 만들어요. 나도 그 작가들처럼 나만의 방법으로 상상력 넘치게 글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누구도 쓰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글을 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J.K. Rowling은 해리 포터 시리즈를 자기만의 독특한 이야기로 만들어 뉴욕 타임즈 베스트 셀러가

되었어요. 나도 J.K. Rowling처럼 유명한 작가가 되어 다른 사람의 롤 모델이 되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하고 싶어요.

〈김 남 효〉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전문적인 플룻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나에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과 같아요. 첫째, 나는 지금 2년 째 플룻을 배우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플룻이라는 악기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고 있어요. 둘째, 나의 밴드 선생님과 플룻 선생님께서 항상 내가 플룻을 잘 연주한다고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어요. 선생님들께서 절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언제나 내 맘 속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셋째는 나는 플룻의 소리가 정말 좋아요. 플룻은 은빛 나는 반짝이는 악기면서 그 소리가 가볍고 신나요. 플룻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내가 진심으로 음악의 가치에 대해 고마워 할 수 있게 해요. 내가 전문적인 플룻 연주자가 된다면 나쁜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의 음악으로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플룻 연주자가 된다면 나는 연주회를 열거예요. 무대에서 연주를 하려면 무대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꼭 전문적인 플룻 연주자가 되어 나쁜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의 음악을 듣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해 반 문 장 모 음

〈권 서 은〉

나는 커서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책을 읽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작가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쓰기를 열심히 합니다. 나는 연습을 아주 많이 합니다. 내가 열심히 연습한다면 나의 목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나는 학교에서 writing수업 시간에 세부 묘사나 시간에 따른 문장의 배열 등을 배웁니다. Language Art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십니다.

작가들은 보통 특정 장르의 책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Eoin Colfer는 환타지와 공상 과학 소설을 씁니다. Rick Riordon은 신화에 기초한 환타지를 주로 씁니다. Hunger game은 내가 좋아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미래의 테크놀러지나 지금과 전혀 다른 사회를 상상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또 신화를 바탕으로 한 환타지도 좋아합니다. 아르테미스 같은 신화 속 인물들을 알 수 있어서 더 재미있습니다. 나는 내가 읽은 책들에서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다른 많은 책들에서 얻은 아이디어에 나의 생각들을 덧붙여서 스토리를 만듭니다. 나는 J.K. Rowling처럼 내가 쓴 책이 영화화 될 정도로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작가로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된다면 나는 아프리카나 아이티처럼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가 없다면 나 역시도 작가가 되지 못했을 테니까요. 나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난한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처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그들 역시 가난할 것이고, 그들의 지식들 역시 가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명한 작가가 되면 나는 꼭 학교를 세우는 펀드나 재단을 세우고 싶습니다. 나는 책을 읽고 새로운 스토리를 쓰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서 작가가 되어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김 소 영〉

나의 꿈은 수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아픈 애완동물을 치료해 주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일곱 살 때부터 동물들을 돌보는 수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작은 동물들을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들이 다치거나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슬퍼질 거 같았습니다. 내가 수의사가 되어 아픈 동물들이 건강하고 튼튼해지면 모두들 행복해 질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러 종류의 다른 동물들 많이 보고 싶어서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동물의 종류와 이름이 뭔지 볼 수가 있으니까요. 또한 동물들을 어떻게 치료하는 지도 알고 싶어요. 수의사가 되려면 어렵게 공부도 많이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내가 수의사가 되어 여러 사람을 도우면 이 세상이 조금은 좋아질 거예요.

〈박 태 정〉

저는 어른이 되면 제트기 조종사가 될 거예요. 조종사가 되면 재미있겠어요. 하늘을 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총하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싶어요. 진짜 신날 것 같아요. 제트기는 빨리 날라요. 힘센



해 반 문 집 보 음

기계예요. 미국 제트기를 타고 싶어요. 특히 F-22raptor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그 제트기는 진짜 빠르고 멋있어요. 조종사가 되려면 건강하고 똑똑하고 시력도 좋아야 해요. 많은 기술도 익혀야 하고 시험에도 합격해야 해요. 앞으로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알아갈 거예요. 이 꿈이 진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조 하 진〉

나는 커서 테니스 선수가 되고 싶어요. 테니스 선수가 되고 싶은 이유는 재미있어서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두 가지 이유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기부도 많이 할 거예요. 나는 플로리다에 살 거예요. 나는 잡지와 뉴스에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나는 골프선수도 되고 싶고, 레슬링도 좋고, 야구도 좋아요. 또 신발 가게도 갖고 싶어요. 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쨌든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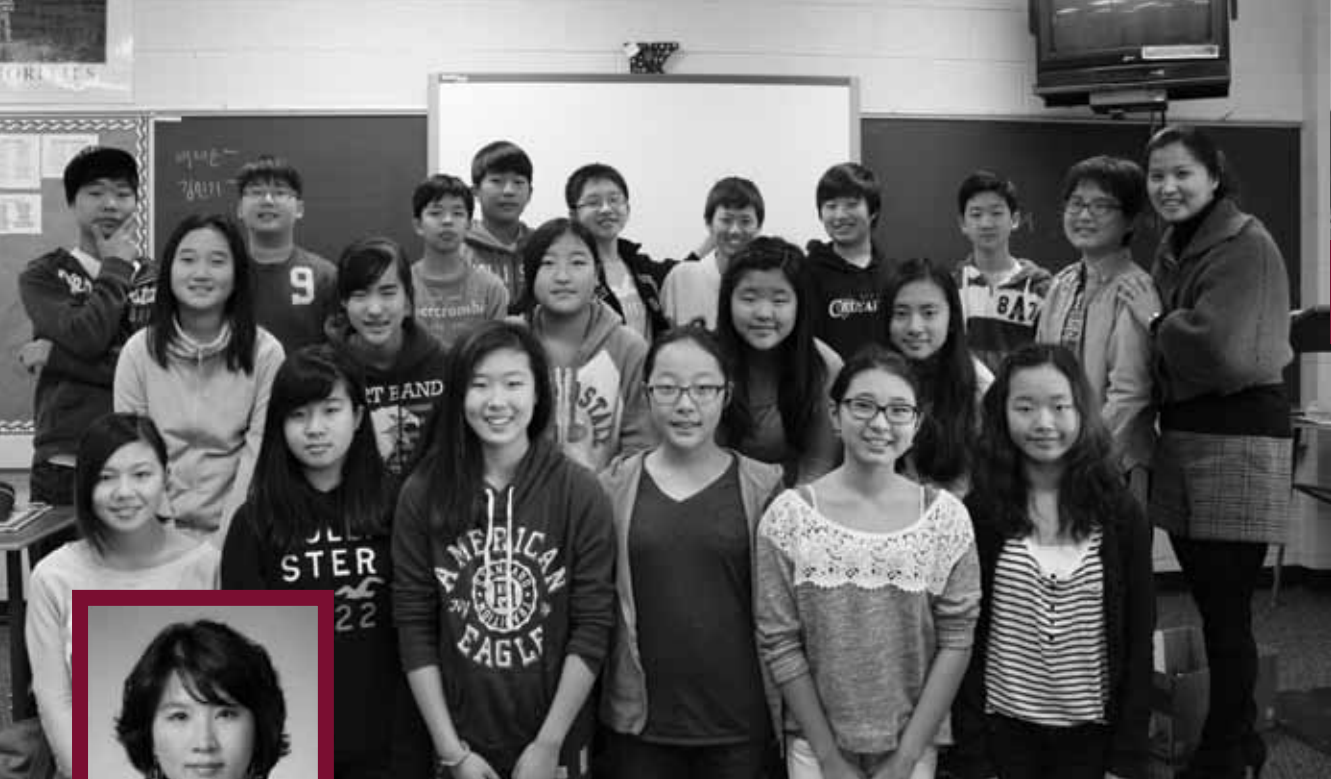
〈이 준 오〉

나는 나중에 커서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트럼펫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트럼펫 소리는 크고 웅장해서 오케스트라에서 아주 멋진 파트를 연주하지요. 나는 그 소리들을 들을 때면 재미있고 기분이 짜릿해져요. 나는 시카고 오케스트라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많은 연주자들이 함께 소리를 내어서 멋진 음악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음악가들은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어요. 여행

을 하면서 맛있고 새로운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고, 멋진 텍시도를 입으면 더 근사해 보일 수 있어요. 또 여러나라 친구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나라의 음악들도 배울 수도 있고요. 유명한 사람들도 만날 기회도 있지요. 그 중에서도 정치가들은 만나서 좋은 토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렵고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음악가가 되면 정말 멋지겠지요?

〈유 수 민〉

나의 꿈은 화가 아니면 의사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부터 그림 그리기와 동물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저는 사람보다 동물을 그리는게 더 좋았습니다. 저는 미술 시간에 벌써 많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화가가 되면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물감 쓰는것을 좋아해서 물감을 갖고 색칠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나는 종이만 있으면 연필은 꺼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나는 동물들을 너무 좋아해서 커서 동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면 많은 동물들을 만나서 너무 좋을것 같습니다. 동물들을 도와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나는 많은 동물들을 키우고 싶은데, 만일 동물들이 아프면 의사한테 안 데려가고 그냥 내가 치료하면 되잖아요. 나는 화가 아니면 의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화가가 되면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수의사가 되면 동물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솔달반 선생님 | *안래정*

아무래도 스무명 넘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공부하는 것이 세종학교와 함께하는 저의 운명이니 싶습니다. 지난해 학생 수가 많이 늘어 7학년과 8학년이 나눠져 있었을 때 저는 같은 학년의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새학기를 맞이했습니다. 10명의 8학년 학생들과 가족적인 분위기로 수업하는 것에 적응이 되고 있을 무렵 7학년 솔반 선생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한국에 가시면서 다시 예전처럼 7학년과 합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명에서 하던 수업이 25명으로 늘어나니 처음엔 좀 걱정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걱정은 잠시 뿐,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적응했고 수업시간도 더 활기차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 만난 선생님과 낯선 학습분위기에 동요되지 않고 꾸준히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던 7학년 솔반, 동생들의 수세에 밀리지 않고 듬직하게 형누나의 자리

를 지켜주었던 8학년 달반 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라도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저와 2년동안 함께했던 민영이, 지윤이, 혁호, 성민이, 민기, 형근이, 명철이, 세빈이, 나현이를 고등부로 올려보내려니 마음이 허전하네요.

8학년 달반! 고등부 올라가서도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한국인의 모습을 세계 만방에 알리길 기대할게~ ^^

그리고 7학년 솔반! 내년 일년 선생님과 다시 한번 화이팅, 못다한 정을 나누자구요~ ^^

솔달반 친구들 (*결석)

김민기, 김현준, 권혁호, 이명철, 이형근, 배재훈, 이태석, 최지웅, 이상일, 권혜진, 심지인, 최하영, 차승연, 원지윤, 김지연, 안나현, 이민영, 유수하, 김혜진, 전세진, *함성민, *최수만, *홍아리



술 달 반

문 집 보 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최 하 영

나는 해마다 여름방학이 되면 서울에 간다. 서울에 가면 가족들과 여러 곳으로 여행을 다녔는데 작년 여름은 좀 특별했다. 처음으로 나 혼자서 처음 만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난 여름 1박2일 동안 전국에서 온 푸른 누리 기자 80명과 함께 떠났던 여수 엑스포 투어는 정말 재미있었다. 처음 만난 아이들과 광주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일이 너무나 무서웠지만 나에게에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광주역에서 버스를 타고 여수에 도착하자마자 점심으로 부페를 먹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여수 시장님께서 여수 엑스포에 대한 소개를 하셨다. 시장님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해외에서 온 기자는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푸른 누리 기자 대표로 뽑혀서 시장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여수 엑스포 홍보관과 오동도를 구경한 다음 유람선을 탔다. 햇볕이 뜨거워서 유람선안은 너무 더웠지만 갈매기에게 새우깡을 주는게 재미있어서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유람선 관광이 끝난후 저녁을 먹고 나서 여수 엑스포 퀴즈대회를 했다. 퀴즈 문제의 답을 맞추면 상품으로 인형, 스티커, 손목 시계를 주었는데 나는 아는게 거의 없어서 상품을 하나도 받지 못해서 조금 서운했다. 퀴즈 대회가 끝나고 방 하나에서 6명의 친구들이 함께 잤는데 우리 방에는 사투리를 쓰는 아이들이 있어서 사투리로 계속 수다를 떠는게 참 신기했다.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인 시장인 화개장터로 갔다. 아침이라서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네모난 가위를 가지고 엿을 자르는 엿장수도 보았고 산나물을 파는 가게도 구경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옥수수를 파시던 아저씨께서 다리를 다친 비둘기를 고쳐주시던 모습이였다. 화개장터를 구경하고 나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장소인 광양제철소에 도착하였다. 공장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았는데 너무 뜨겁고 시끄러워서 무서울 정도였다. 하지만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참 신기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광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용산역에 도착해서 친구들과 헤어질때 너무나 서운했다. 나는 이번 여행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어서 참 좋았다. 여행하는 동안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아마 내가 미국에서 와서 그런 것 같았다. 친구들이 모두 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게 정말 즐거웠다. 이번 여행 동안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신조어 사용에 대한 나의 생각〉 배 재 운

신조어는 우리가 쓰는 말을 짧게 불러서 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추카(축하한다), 즐팅(즐거운 채팅), 그리고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등이 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신조어를 자주 쓰는데 나는 신조어 쓰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신조어를 쓰면



속 달 반

문 집 모 음

장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내 생각에는 단점이 더 많다. 왜냐하면, 신조어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원래 쓰던 말도 달라져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 들을 수가 있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어쩔때는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모르는 신조어를 쓰게 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어색해져서 멀게만 느껴진다. 신조어는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리고 신조어를 자주 쓰게 되면 어른들과 말할 때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나중에 계속 신조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어른들과 혹은 나같이 신조어를 잘 모르는 아이들과 말을 하려고 그랬을 때 이해가 잘 안된다. 물론, 신조어를 쓰는데 장점도 있다. 신조어들은 원래 말 보다 짧아서 쓸때, 그리고 말할때 쓰기가 편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조어를 쓰는 것이 재미있다. 하지만 신조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사회를 도와주는 부분 보다는 나쁜점이 더 많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 상 일

제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책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어떤 것을 물어 보셨는데 제가 대답을 잘

해서 엄마가 어디서 배웠냐고 해서 책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책을 잘 사주십니다. 저는 책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 지지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미시간에 대해서...〉
홍 아 리

미시간이라는 이름은 Mishigama에서 나왔어요. 미시간은 미국 중부에 있어요. 미시간은 사람들이 나무를 자르러 오면서 주로 만들어 졌어요. Rosa Park 이라는 사람은 흑인의 인권을 찾기 위해 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디트로이트 출신이에요. 또 미시간에서 미국의 대통령 한 분이 나왔어요. 미시간의 주요 산업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생각하면 미시간을 떠올려요. 그리고 미시간에서 유명한 흑인 음악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Mo Town이라고 불러요. Mo Town은 1950년대에 유명해 졌어요. 미시간의 미래는 더 좋아질 거라 믿어요. 지금은 미시간이 조금 어려워 하지만 미래에는 더욱 발전 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미시간 날씨도 좋고 너무 좋은 것도 많아서 미시간을 좋아해요.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곳〉
원 지 윤

나는 어렸을 때 부터 프랑스에 가고 싶었습니다. 나한테는 프랑스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해서 매력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 가고 싶은 첫번째 이유는 관광 명소가 많



솔 달 반

문 집 모 음

기 때문입니다. 에펠탑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탑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보고 싶습니다. 또한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해서 특별한 작품도 보고 싶습니다. 나는 모나리자를 많이 봤지만 루브르 박물관에서 원본을 보고 싶습니다. 또 나는 롤러 코스터를 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리에 있는 디즈니랜드도 가고 싶습니다. 프랑스에 가고 싶은 두 번째 이유는 맛있는 음식입니다. 프랑스는 환상적인 맛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내가 프랑스에 갈 수 있다면 다양한 빵과 그들이 가진 수백가지 치즈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국적인 음식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프랑스에 가고 싶은 마지막 이유는 패션 때문입니다. 나는 패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요 패션 도시로 알려진 파리에 가고 싶습니다. 파리는 최신 유행 패션을 주도하고 있어서 파리의 패션 거리를 둘러보고 싶습니다. 또한 프랑스어는 항상 저를 매료시켰어요. 소리와 억양은 늘 흥미로워서 프랑스에 가기 전에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프랑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인사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 패션, 관광명소 이것들이 다 프랑스에 가고 싶은 이유입니다. 프랑스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도 있고 파리와 같은 현대적인 도시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런 상반된 도시를 둘러보며 프랑스의 매력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최 세 빈

내가 세계에서 아무데나 갈 수 있으면 롯데월드를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네살때 롯데월드를 갔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진들도 다 있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또는 저의 한국 친구들이 롯데월드가 너무 재미있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롯데월드를 한번 찾아 봤어요. 찾아보니 너무 재미있게 보였어요. 그리고 롯데월드는 너무 넓어요. 롯데월드는 안쪽 하고 바깥쪽도 있어요. 그래서 롯데월드에서 할 것이 많아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박물관도 구경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꼭 하고 싶은 것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저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을 많이 좋아해요. 인터넷에 사진들을 보니까 롤러코스터가 재미있게 보이네요. 롤러코스터가 한 개가 아니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밥도 맛있게 먹어 보고 싶어요. 롯데월드 안에는 한국 밥만 있는게 아니고 유럽하고 일본 밥 종류들도 있어요. 또 박물관도 구경하고 싶어요. 특별히 박물관 안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구경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롯데 호텔 안에서 자면 좋겠어요. 죽기전에 롯데월드를 꼭 가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 함 성 민

나는 아직도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역시 한국이다. 우리 아빠의 직업상 우리가



술 달 반

문 집 보 0

족은 여러 곳을 다니며 생활했다. 그런 이유로 나는 한국이 아닌 또 미국도 아닌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아프리카도 아름다운 나라임에도 나는 아주 어렸었기에 그곳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다. 나의 기억속에 한국은 미국과는 또다른 새로운 세계였다. 미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한국에는 초등학교 2학년때 부터 살았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아서 학교생활이 참 힘들었다. 그래도 나와 같이 생긴 아이들이 가득찬 교실에서 공부하고 같이 놀고 같이 이야기 하고... 나와 같더라는 그 자체가 참 좋았다. 미국에 있을 때는 우리 네 식구가 다였는데 한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큰 사랑을 주시니까 너무 행복 했었다. 엄마, 아빠와는 다른 느낌이라고 할까? 이런 느낌은 미국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것 같아서 난 항상 한국이 그리웠나보다. 한국에 있을 때 여러 곳을 여행할 기회가 많았다. 제주도, 강원도, 인천, 경주, 거제도 등등... 사람들은 한국이 좁아서 싫다고 하는데 여행 다닐때는 시간이 짧게 걸려서 좋은 것 같다. 아빠와 낚시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었다. 다양한 음식들이 매력적인 한국, 너무 그립다. 지역마다 특색있는 음식들이 있어서 여행 다니는 곳마다 나는 정말로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때 우리는 시차 때문에 고생 했는데 시간차 극복을 위해서 껌질방을 이용했다. 다른 식구들 피해를 줄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적응하고, 우습다고 말할 지도 모르지만 난 정말로 껌질방이 너무 너무 그립다. 요즘은 한국이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한국인

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한국이 제일 가고 싶다.

〈친구〉
김민기

나는 손예람이라는 친구가 있다. 나하고 2년 차인데 행동이 어린애 같다. 그래서 형보다는 친구라고 생각한다. 나처럼 장난을 많이 치고 게임도 많이 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날때 마다 농담만 하고 장난만 한다. 그래서인지 예람이와 놀때 엄마한테 많이 혼난다. 애처럼 행동하고 게임만 한다고 혼낸다. 그렇지만 예람이가 소중한 친구여서 엄마말을 어쩔땐 듣지 못한다. 나는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람이와 싸운 적도 없다. 같이 싸운 친구는 많은데 예람이와 싸운적은 없다. 장난만 쳐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생각이 너무 같은건지 왠지 모른다. 예람이는 진짜 착하다. 장난을 치기전에 누구의 마음을 만들거나 아니면 누가 다치진 않을지 먼저 생각하고 한다.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준다. 그런데 공부는 그리 잘 못해서 걱정을 한다. 커서 예람이가 뭐가 될지 걱정한다. 장난하고 말춤 빼곤 잘하는 게 없다. 학교도 잘 다니지도 않고, 운동도 잘하지 않는다. 똑똑한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매일 기도하고 걱정한다. 그렇지만 난 예람이를 만나서 감사한다. 예람이는 나하고 비슷해서 감사하다.



술 달 반

문 집 보 음

〈제 소중한 친구〉 이 민 영

제 소중한 친구는 GRACE 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친해졌어요. 우리는 사이도 좋고, 친해서 GRACE가 저의 소중한 친구가 됐어요. 저나 GRACE가 문제가 있으면 같이 도와줘요. GRACE가 저를 더 많이 도와줘요. GRACE가 다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줄 거예요. GRACE의 나쁜점을 고칠려고 뭐든지 할 거예요. 저랑 GRACE는 많은 걸 같이해요. 우리는 생일도 똑같아요. 저랑 GRACE는 사이가 좋아서 논쟁도 안해요. 저는 이 친구가 없었으면 재미있는 것도 많이 못했을 거예요. 저는 GRACE가 없었으면 많은 걸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재밌는 것도 많이했고, 재밌는 데도 갔어요. GRACE는 재밌고 좋은 성격이 있어요. 저랑 GRACE는 친구가 된게 좋은 일이에요. 저는 GRACE같은 친구가 있어서 좋아요. 이 친구가 없었으면 슬펐을 거예요. 저는 친구가 많은데 그중 GRACE가 제일 소중한데요.

〈꿈속으로〉 권 혁 호

나는 갈 수 있다면 꿈속에 가고 싶다. 나는 꿈속에 가고 싶은 이유가 몇가지 있다. 첫번째 이유는 내 꿈이 아주 이상해서다. 나는 내 꿈을 말로만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꿈은 상상력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꿈속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 현실에서는 일어나기에 불가능하다. 보통은 현실은 꿈이랑 다르지만 일을 노력하고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만약에 어린이가 우주에 가는 꿈을 꾸다면 그 꿈을 현실로 가지고 와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루어 질 수 있다. 꿈은 다른 나라다. 꿈에서는 자신이 왕이고, 무엇이든 생각하면 다르게 될 수 있다. 꿈은 비밀스럽기도 하다. 꿈은 깨어나면 생생하게 기억을 못할 때가 많다. 꿈은 매일 있는 것도 아니다. 꿈은 가끔 나온다. 사람들이 조정할 수 없는 것 중에서 한가지가 꿈이다. 그래서 악몽도 있을 수 있다. 악몽은 안 좋은 일이나 무서운 것을 합친거다. 악몽은 꿈속에서 공포감을 주고 안좋은 느낌을 준다. 꿈이라는 것은 과학자들도 이해를 못했다. 우리는 꿈이 잘때 나오고 악몽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많은 것은 잘 모른다. 나는 항상 언제까지 꿈은 베일에 감겨있을지 궁금하다. 나는 아무도 이해를 못한 나라,
“꿈에 가고 싶다.

〈나의 소중한 친구들〉 이 형 근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조셉이다. 우리는 2011년 여름에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조셉은 정말 나에게 친절하다. 내가 힘들어 할 때 항상 내편에 서서 도와 주었다. 조셉은 나와 같은 8학년이고 우리 항상 같이 스포츠를 즐겁게 했다. 재미 있는 건 조셉은 골프를 빼고 모든 스포츠경기에서 나보다 잘한다. 아마도 골프는 내가 더 잘 칠 듯 하다.



소름 달 반 문 집 보 으

아무튼 조셉은 정말 좋은 친구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유스그룹 친구들이 모두 좋은 사람이다. 그 중에 한명 더 소개 하고 싶은 사람은 정찬미 누나다. 찬미 누나도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이며 누나이다. 우리 팀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누나라서 그런지 모 일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특히 동생들에게 누나는 더욱 그렇다. 찬미누나는 몸도 마음도 강한 사람이다. 무거운 것도 잘 들고 마음도 잘 다스리고 신앙도 아주 좋아서 정말 배울고 싶은 것이 많은 누나다. 이 두사람이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나를 믿어주며 응원해 주는 소중한 친구들이다. 나도 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도록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조셉하고 찬미누나 미래를 잘보고 힘찬 친구가 되도록 해보자. 친구 파이팅!!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곳〉 이 명 철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은 한국이다. 한국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모 그리고 이모부가 모두 한국에서 살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고 한국에 가면 친구들과 떡볶이를 많이 먹고 축구를 많이 할 것이다. 나는 한국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을 것이다. 맛있는 간식과 사탕을 많이 사고 한국 영화도 많이 보고, TV도 많이 볼 것이다. 이게 내가 한국을 가면 할 것들이다. 그리고 나는 유럽에 가고 싶다. 유럽에서 유명한 축구선수들을 보고 싶다. 유럽에 가서 에펠

탑도 보고 멋있는데도 많이 가 볼 것이다. 하고 축구도 많이 할 것이다. 이게 내가 유럽을 가면 할 것이다.

〈신조어에 대한 나의 생각〉 유 수 하

저는 신조어가 쓰이든 안쓰이든 별 상관을 안합니다. 신조어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요. 장점은 쉽다는 것입니다. 쓰기도 쉽고, 말하기도 쉬우니까요. 추카, ㅋㅋㅋ, OTL, 꽃미남 등은 축하, 크크크 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신조어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신조어를 쓰면 문법과 철자도 비뚤어지고 틀릴 확률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영어든 한국어든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일은 불가피한거죠.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의 마음도 바뀌죠.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가 잊혀집니다. 아무리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저도 신조어를 자주 씁니다. 네이버 만화에서 댓글을 쓸때도 있고, 친구들 이나 가족과 대화를 할때도 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안쓰는 건 불가능하죠. 야뭇든 저는 신조어들이 쓰이던 말던 상관 없습니다. 단점과 장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쓰면서 우리의 ‘오리지널’한 말을 잊지 맙시다! ㄱ
ㄴ ㄷ ㄹ !



솔 달 반

문 집 보 음

〈지혜로운 사람〉 전 세 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화책을 많이 읽으면 더 많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동화책은 그 책을 읽는 사람한테 뭔가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것 표현하면 주인공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요. 책에서만 나오는 방법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백설공주는 나쁜 마녀를 이기려고 지혜롭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 따라 우리도 생각하고 나쁜 것을 막아야 되요. 걸리버의 여행은 걸리버가 안 맞는 데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예요. 다시 집으로 가는게 해매서 걸리버가 잘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되요. 너무 작은 장소 그리고 큰 장소도 이상하니까 걸리버가 지혜롭게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똑똑했어요. 신데렐라에는 요정이 지혜롭게 생각해서 신데렐라가 필요한 것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났어요. 요정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신데렐라한테 그런 기회를 주었어요.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많은 문제가 풀어져요. 동화책에 있는 것도 현실이 될수 있으니까 노력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김 지 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Warm Bodies입니다. Warm Bodies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줄거리 입니다. Warm Bodies의 주인공은 좀비인데 이름은 R 입니다. 이 좀비는 여주인공인 Julie를 만나서 해치지 않고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Julia 아버지가 그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Julie 아빠가 좀비를 싫어해요. R을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Julie가 R을 좋아해서 R를 죽이지 못하게 도와 주었어요 끝에 R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이 좀비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내가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심 지 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파리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술을 아주 좋아해서 아직까지도 화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파리에 있는 루브르에 가면 ‘모나리자’랑 ‘MEDUSAS’S RAFT’처럼 유명한 그림들을 실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물관의 그림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파리에 가서 ‘MACEO’에서 맛있는 빵이랑 케익도 먹고, ‘LE MEURICE’에서 맛있는 파스타랑 스테이크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MADELEINE’에서 맛있는 크레이프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요. 저는 미술이랑 음식도 좋아하



술 달 반

문 집 모 음

지만, 재미있는 것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파리에 가면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에펠타워를 볼 수도 있고, 피카소가 갔던 'LES DEUX MAGOTS' 카페에서 피카소가 먹었던 음식들도 먹어 보고 싶습니다. 또 파리에 있는 'NATIONAL LIBRARY OF FRANCE'에서 신기한 책이랑 인형들도 보고 싶습니다. 파리는 제가 좋아하는 미술, 음악,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꼭 가보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차 승 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책마다 주제가 있다. 책을 읽고 나서 그 주제를 배운다. 책의 주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지혜로운 결심을 만들기 위해 인물들의 실수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책을 읽고 나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 책 때문에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내가 읽은 책의 이 책의 인물은 거짓말쟁이 였었다. 항상 시험을 커닝 했었다. 그런데 어느날 선생님께 시험 커닝을 하는 것을 들켰다. 이 인물은 인생에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은 책에서 배운 많은 주제 중에 하나다. 지혜는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된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지혜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다. 책을 많이 읽

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이세상에 많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빠의 1주기 추도식〉 김 혜 진

세종학교 7학년 김혜진 양은 지난 9월 30일 엄마와 동생 김윤진 양과 함께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의 1주기 추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천국에 먼저 가신 아빠에게 지난 1년동안 있었던 일들과 하고 싶은 말들을 편지로 쓰고, 동생과 함께 스크랩북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로 고 김화성 씨가 잠들어 있는 곳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엄마 김소희 씨와 동생 윤진 양과 함께 평소 고인이 좋아했던 찬송도 불러드리고, 고인에게 드리는 편지도 읽고, 기도도 하는 작은 예배를 드리면서 1주기를 의미있게 보냈습니다. 이날, 날씨또한 화창한 가을 날을 선보여 마치 가을을 가장 좋아했던 고 김화성씨가 기쁘게 화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 이 태 석

저는 지금 7학년입니다. 5년 후에는 17살이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17살이 되면 운전면허증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천천히 모아 놓을 거예요. 22살이 되는 10년 후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집을



솔 달 반

문 집 보 음

가질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직장을 찾기 시작 할 거예요. 20년 후에는 32살이 되요. 그때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고 잘 키울 거예요. 30년 후에는 42살이 되요. 30년 후에는 늙어지는 생각이 날 거예요. 그때는 가족을 잘 보살피며 즐겁게 살고 있을 거예요.

〈미래의 나의 모습〉
최 지 웅

5년 후에 나는 고등학교 시니어가 될 거예요. 대학 준비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10년 후에 내 모습은 미시간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해서 좋은 직업을 가질 거예요. 좋은 직업 있으면 내가 집을 살 거예요. 20년 후에 내 모습은 예쁜 여자와 결혼 할 거예요. 결혼하고 아기가 있을 거예요. 30년 후에 내 모습은 여덟살 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선수〉
최 수 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선수는 Miami Heat 프로 농구단에 있는 LEBRON JAMES입니다. 그는 1988년 12월 31일 Ohio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부터 모든 운동을 잘 했지만 특히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프로 선수로 발탁되어 대학을 포기하고 Ohio Cleveland Cavaliers에 들어가 선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LEBRON

JAMES는 처음으로 NBA 챔피언이 됐어요. 3번이나 MVP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번이나 All Star Team을 했고 2012년 6월에 금매달을 땀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
김 현 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매일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힘과 자신감을 주기때문이다.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 예수님 위해서 쓰고있다. 찬양하고 드럼을 칠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이 아주 기쁘다.

〈세종글짓기대회 솔반 수상자〉

솔상: 최하영

아름다운상: 배재운

고운상: 이상일

예쁜상: 홍아리



별반1 선생님 | 문혜민

4월이 다 가도록 오락가락 하던 날씨가 이제는 따뜻해질려나 하는 기대를 하여봅니다. 아이들 글을 다시 읽다보니 새삼 아이들의 얼굴과 지난 1년의 시간이 떠오릅니다. 더러는 서툴고, 맞춤법도 틀리며, 어색한 문맥도 있지만 그 자체가 저희 아이들에게 수정 없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저희 별-1반은 9학년 학생만으로 이루어진 학급입니다. 이미 주중 학교에서의 과제나 여러 활동들로 바쁜 고등학생들이 황금같은 주말 시간을 할애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도 저는 우리 반 모든 학생들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한글을 익힐때처럼 그들의 배움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쩔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한국어 실력이 금방 성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시간과 노력을 마다 않는 학생들의 성실함과 노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멋쟁이 카리스마 지우, 새침한 예쁜이 원옥, 상냥하고 귀여운 재민, 총명하고 차분한 아라, 개구쟁이 뽕뽕이 성현, 언제나 웃는 스마일 보이 지호, 엉뚱한 귀요미 태오, 성실한 젠틀 가이 동욱..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운전해 주시며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별반1 친구들 (*결석)

김동욱, 박성현, 유지호, 박재민, 최지우, 최원옥, *고아라, *이태오



별 반 1

문 집 모 음

〈나의 꿈〉 김 동 욱 (예쁜상)

나는 여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다. 피아노를 배웠는데 선생님이 재미없어서 그만두었다. 그런데 피아노를 좋아해서 혼자서 비디오 보고 쳤다. 그때부터 혼자서 악기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형이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 멋있어서 쳐봐도 되냐고 물었더니 기타를 빌려주었다. 딱 치는 순간 알았다, 기타를 치고 싶었다. 집에 있는 기타를 치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다. 다른 악기도 배웠다. 드럼, 베이스, 그리고 학교에서 밴드 악기도 다 배웠다. 다른 악기들도 재미있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 치는 악기는 전자 기타이다. 지금은 교회에서 전자 기타를 치고 있다. 너무 재미있고 좋았다. 내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서 기분이 너무 흐뭇하다. 그래서 나의 꿈은 밴드를 시작해서 크리스천 밴드를 만들고 싶다. 유명해서 다른 교회들이 내가 만든 노래를 부르면 좋을 것 같다. 친구들이랑 세계를 일주하면서 콘서트를 하고 싶다. 나중에는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나의 꿈이다.

〈한국 여행〉 박 재 민 (아름다운상)

내가 미국에 온 후에 두 번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2002년 9월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첫 번째 한국 방문은 2학년 때였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이번 여름 방학 이었다. 7월에 가서 8월

에 돌아왔다. 할머니와 친척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다. 나는 주로 할머니 댁에 머물고 있었다. 한국에 있을 동안 서울의 여러 곳을 다녔다. 친할머니랑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화려하고 멋있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참 놀랐다. 아마도 더운 여름밤을 피해 남산으로 온 것 같다고 할머니가 말했다. 남산타워에서 사진 많이 찍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서울의 밤 거리를 많이 걸어 다녔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낮에는 걸어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밤에 다닌 명동 거리의 포장 마차, 많은 가게들, 그리고 청계천에서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혔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Wicked 뮤지컬을 큰 이모가 보여 주었다. 막내 이모는 요리를 참 잘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 우리 엄마는 언니 두 명과 두 명의 동생이 있다. 그래서 나에게는 사촌이 참 많다.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어서 참 재미있었다.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 내년엔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제주도로 가볼꺼다. 제주도가 정말 멋있단 말을 많이 들어서 가보고 싶다. 사촌들한테도 더 놀아줄꺼다. 저번에 아빠가 같이 못가서, 다음엔 한국을 모두 가족이랑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나의 꿈〉 박 성 현

나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거예요. 나는



별 반 1 문 집 보 음

변호사 되고 싶어요. 변호사를 되어 돈을 많이 받을꺼예요. 돈을 많이 받아서, 큰 집을 사고, 그 집안에서 큰 수영장이 있을거고, 농구장, 영화장, 가게, 음식점, 백화점, 학교 있을거예요. 내가 너무 돈이 많아도 애들한테 돈을 안 줄거예요. 달에 집을 만들거예요. 차를 안타고 리무진을 몰구 다닐거예요. 집이 조그만 도시 만큼 클거예요. 집안에서 동물원도 있을거고 지하철도 있을거예요. 이 돈은 다 어디에서 와요? 변호사되서 돈을 사람들에게 많이 바들꺼예요. 처음에는 많이 안바들꺼는데, 3년 지나면 돈이 Bill Gates만큼 있을 거예요. 5년 지나면 \$1,000,000,000,000 있을거예요. 7년 지나면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있을 거예요. 10년 대면 은퇴할거예요. 10년 대면 돈이 너무 많아서 한 은행이 나의 돈을 다 못 지켜요. 돈을 200개 은행안에 있을거예요. 사람들이 대통령보다 나를 더 잘 알거예요.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지구를 살수 있는데 좋은 사람이어서 안할거예요. 나는 지구를 도와 주고 싶어요. 도와 주고 지구를 좋은대를 만들고 싶어요.

〈나의 꿈〉
최 지 우(별상)

저의 꿈이 뭔지 묻는다면 솔직히 저는 대답이 없어요. 세상에 직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어떻게 고를지 몰라요. 저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선택했는지 아주 궁금해요. 요리사나 변호사나 저의 친구들은 모두 다 서로 자신의 꿈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오랫동안 꿈을 생각한적이 없

어요. 부모님과 오빠는 마취과 의사 되라고 하고, 친구들은 미술가 되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잘 살 수있는데 너무 힘들고 지루할 것 같아요. 또 대학교에서 팔년 넘게 공부하기 싫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저에게는 싫어하는 직장에서 매일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반면 친구들은 대학교를 가지 말고 그냥 그림 그려서 팔래요. 저는 미술도 좋아하고 재능도 있는 것 같은데 수입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요. 행복해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없고 저는 가난하게 살기 싫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한다고 해도 매일 싫은 일을 한다는 것도 인생이 너무 괴로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구학년이에요. 그말은 사년후에 대학을 결정하고 다녀야 하는 것이예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도 결정을 했는데 나만 혼자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직업은 부모님들이 싫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직업은 별로예요. 저도 빨리 결정하고 싶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않을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건 저니까 제가 행복한 길을 고르고 싶어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결정을 짓고 싶어요.

〈한국 여행〉
주 예 지

저는 2005년에 한국을 갔어요. 그때는 2학년이 끝나고 3학년으로 올라가는 여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처



별 반 1

문 집 모 음

음으로 타는 비행기라서 무섭기도 했어요. 새벽에 한국을 도착했는데 미국과 시간이 달아서 졸립지는 않았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학교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3학년 반이었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혼내면서 때릴 수도 있었던 시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로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내 생각으로는 한국 3학년과 미국 3학년을 비교 하면 한국에 학습 수준이 더 빠릅니다. 미술 학원에도 갔었습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추억이 있었습니다. 학교와 미술 학원 때문에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하철이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이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슬펐지만 후회없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다면 지금 바로 가고 싶습니다.

〈나의 꿈〉
고 아 라 (대상)

꿈은 특별한 것이다. 사람들의 생활 경험에서 꿈이 나타나고, 한번 생기면 기억에 항상 남아있는 것이다. 올해 나는 9학년이 되어, INTERNATIONAL ACADEMY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IA는 보통 학교가 아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주로 외국인 2세들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나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다. 반 친구들을 처음 만나고 그들에 여행과 문화

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았다. 미국에서 보내는 나의 생활은 대개 좁고 고립된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 나는 여행을 하면서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학교에서 “세계의 날”에 여러나라 친구들이 가져온 특이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나라들을 여행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신기한 빌딩들, 역사적인 기념비와 박물관들...이집트에 피라미드, 세인트피터 cathedral, 타지마할...여행하고 싶은 곳이 정말 끝이 없다. 세계의 멋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IA에서 만나는 친구들로 인해, 수업시간에 세계에 대해 배우면서 나는 세계를 여행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 경험과 도전으로 나의 생각과 견해를 넓히고 싶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IA를 졸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IB 졸업증서가 있으면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것이 사람들이 IA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한국이나 스페인에서 공부하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졸업 후엔 그곳에서 내가 일을 찾아 먼저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독립해야 한다.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 이상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능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더 값지다고 생각한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이런 생각만으로도 미래가 너무나 희망이 있고 흥미롭다. 나는 IA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꿈을 실현하는데 있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 꿈을 이룰 때까지 계속 계획하고 노력할 것이다.



별 반 1

문 집 모 음

〈나의 꿈〉 최 원 옥 (고운상)

나의 꿈은 미션 트립을 가는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고 싶었는데,부모님이 너무 어려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결정되는 12학년이 지나고 나면 가려고 합니다. 나는 6학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우리 언니와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데 어느날 부모님과 미션 트립을 가는 친구를 보고 부러웠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해이티에 갔다와서 많은 감명을 바다왔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해이티는 2010년 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건물이 무너 지고,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해이티는 지진 때문에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집과 물도 없고 너무나 가난한 친구들을 보면서, "아~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하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불쌍한 어른과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은 WORLD VISION에 매달 도네이션하고 있습니다. 도네이션 처럼 돈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직접 가서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꿈〉 유 지 호

나의 꿈은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 나는 열심히 해야지 부자가 될수 있다. 공부를 많이 하고 , 열심히 일하면 할 수 있다. 나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매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은 나

의 꿈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University of Pensylvania 가고 싶다. Upena 는 좋은 대학교이다. 열심히 일을 하면은 아무거나 할 수있다. 만약 내가 University of Pensylvania 가면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 잘 할거다. 나는 Wharton 가고 싶다. Wharton은 미국에서 조은 비즈니스 학교이다. 나의 꿈은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돈은 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먹을것이 없다. 내가 부자 되면 먹을거 주고 싶다,내가 부자면 병을 업세고 사람들 음식 주고 다른거 하고 싶다. 내가 부자가 될 때 지구를 좋게 할거다.

〈나의 가족〉 주 예 지

내 가족은 다섯명 입니다. 아빠, 엄마,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와 햄스터도 있습니다. 아빠는 차를 디자인 한 일을 GM에서 합니다. 아빠는 키가 작고, 뚱뚱합니다. 하지만 요리는 정말 잘 합니다. 우리 엄마도 아빠처럼 키가 작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예쁘고 착해요. 가끔씩 화를 낼때도 있지만, 엄마는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해 줍니다. 여동생은 10살이고 나와 비교하면 키가 큼니다. 여동생은 이젠 rebel stage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술을 잘 하고 미술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은 늦둥이라서 아직 2살 입니다. 저랑 같은 호랑이띠 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귀엽고 웃깁니다. 이게 바로 내 가족입니다.



별 반 1

문 장 모 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김 동 욱

나는 유재석이 웃긴 것 같다. 유재석 처음에는 X맨이라는 프로에서 봤다. X 맨을 많이 봐가지고 한국어도 늘었고 한국 프로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유재석은 간죽거리고 말도 웃겨서 좋아했다. X맨이 끝나서 슬펐는데 무한 도전을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X맨보다는 별루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재미있기 시작했다. 무한 도전 싫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 안 웃긴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무한도전에는 유재석, 정형돈, 그리고 노홍철을 제일 좋아한다. 제일 웃긴 것 같다. 유재석은 어떻게 말을 잘 하는지 궁금하다. 재치있고, 눈치도 엄청 빠르다. 사람도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유재석이 좋다.

<나의 가족>

박 재 민

나의 식구는 4명이다. 아빠와 엄마와 남동생이랑 삽니다. 나의 아버지는 열심히 일 하십니다. 매일 회사 출근하시고 8시간 일 하십니다. 아빠는 엄하시고 자상하십니다. Apple product 무척 좋아하시고 노래 부르기도 좋아하십니다. chrysler에서 안전에 연구원입니다. 나의 엄마는 동물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못 키웁니다. 어머니는 요리를 싫어하지만 맛있게 만드십니다. 부침개 하고 볶음밥을 참 잘 만드십니다. 나의 어머니는 우리 가족을 참 잘 돌봐 주십니다. 나의 동생은 게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매일 ipod에 놓고 있고 친구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동생은 대개 재미있고 귀엽습니다. 벌써 12살 된다는게 놀랍습니다. 동생이랑 많이 싸우지만 사랑합니다.

<나의 세종학교>

이 태 오

나는 세종학교에 거의 5년을 다녔습니다. 그동안 한국말도 많이 배우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마다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보니 조금씩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세종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같이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은 심심하고 지루한데 어떤때는 재미있을때도 있었습니다. 세종학교에슨 역사와 글씨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태권도, 음악, 사물놀이와 난타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제일 재미있고 웃을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세종학교는 이렇게 지루하지만은 않고 재미있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세종학교의 교실은 때로는 겨울에는 너무 춥고, 봄에는 덥고, 에어컨소리는 커서 신경 쓰이고, 계단은 너무 많고, 화장실도 무섭고, 간식을 많이 주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내가 5학년이였을 때 화장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무서워 떨어져 5분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벽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고, 결국 화장실에서 빠져나올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는 것들과 친구들 때문에 참을수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세종학교의 친구들은 대부분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수업시간에 장난도 치지만 재미있는 순간들도 많아서 내년에도 세종학교에 다닐 것 같습니다.



별반2 선생님 | 박지영

매주 토요일 별반 교실에 들어서면 순간, 일주일의 고단하고 힘들었을 우리 아이들의 얼굴 위로 여러 가지 표정이 스쳐가는 걸 느낍니다.

고등학교에서의 많은 숙제와 방과 후 활동, 퀴즈와 테스트로 이어지는 하루 하루를 보내고 또 토요일마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기 위해 느긋한 아침 잠과 편안한 휴식을 마다하고 일찍부터 나와 앓았다고 생각하니 대견하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이 짠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디에서든 훌륭하게 자신의 몫을 해낼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며, 항상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운다는

마음으로,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한 번 힘차게 불러 봅니다.

신사적인 매너의 멋진 승근과 현우, 태현, 귀엽고 사랑스런 예은과 재은, 다재다능한 수진과 민지, 끝없이 매력적인 우영과 예람, 상냥하고 친절하 샤론과 현지, 우리반의 분위기 메이커 예쁜 자매 소민과 혜민!

너희들이 있어 올 한해도 참 행복하다.

별반2 친구들(*결석)

심현지, 정재은, 안예람, 김민수, 이승근, 정현우, 이사론, 김민지, 진혜민, 전수진, 진소민, 김우영, 홍예은, *안태현



별 반 2

문 집 모 음

〈나의 꿈〉 진 혜 민 (고운상)

저의 꿈은 척추지압사입니다. 제가 왜 척추지압사가 되고 싶냐면 뼈를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척추지압사는 남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들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힘은 남자들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일들은 다 힘이 듭니다. 사실 안 힘든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힘이 더 필요하면 파트너와 함께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제가 어디를 만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만약 척추지압사가 되는 꿈을 성취하면 또 다른 꿈을 키워 볼 거예요. 골든벨 소녀 김수영처럼 말입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울 것이고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도 갈 거예요. 사람은 동기가 있어야 꿈을 이룹니다. 또 그 반대로 사람이 꿈이 있어야 동기가 생깁니다. 자꾸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을 때 자꾸 자신의 꿈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제 나이는 지금 가장 중요한 나이입니다. 지금 고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고생을 합니다. 저는 공부하기 싫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꿈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결국 많은 후회를 할 것 같아요. 저는 후회하는 사람이 되질 않

기를 매일 바라요. 후회하는 것은 가장 멍청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막 큰 꿈 말고 조그만 꿈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꼭 저의 꿈을 성취하고 싶어요.

〈나의 꿈〉 이 승 근 (예쁜상)

“꿈”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저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할 건지 생각을 안 합니다. 나이가 들 때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합니다. 행복할 건지 아니면 집을 살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저의 꿈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저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못 알아 듣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편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으면 삶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모두 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의 꿈은 재미있는 꿈은 아니지만 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 반 2

문 집 모 음

〈나의 꿈〉 정재은

세상에서 꿈을 한번이라도 안 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공주가 되고 싶었다던지 경찰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며, "너는 뭐가 되고 싶니?"하고 물어 볼 때, 저는 꼭 "선생님"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의 대답이 "의대 쪽으로 가고 싶어요."로 바뀌었어요. 크면서 저는 다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의대 쪽이 저한테 제일 좋은 길이란 결론을 내렸어요. 매년마다 전공하고 싶은 과는 바뀌지만 지금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미국에도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국인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한국어로 설명을 해주는 의사를 좋아하겠지요? 저는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의사가 되면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또 미국에는 여자 의사가 많지 않아요. 여자들은 임신을 했을 때 여자 의사를 원해요. 하지만 여자의사들이 많지 않아서 남자 의사한테로 가지요. 여자들이 더 편안하게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래서 제가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여자 의사가 되면 미국 사람은 물론 많은 한국사람들의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

만 의사가 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저는 공부와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나의 꿈〉 김우영

저에겐 꿈이란 것은 끝도 없는, 한정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아무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죠. 꿈을 이루게 되면 저에겐 행복과 기쁨이 오겠죠. 저는 앞으로, 대학을 마친 후, 가족들과 함께 유럽, 밴쿠버, 그리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게 꿈입니다. 평생 살던 미시간을 떠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우는 것은 저에겐 꼭 이뤄야 할 꿈입니다. 저한테는 미시간이란 곳이 고향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이고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어 편한 곳입니다. 미국에선 모든 게 똑같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편한 곳이 점점 지루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언젠가는 이 미시간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저의 꿈이 됐죠. 어렸을 때, 의대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의학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할머니께서 암에 걸리신 후엔 의대의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가족들은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도와준 보답으로 그 사람들이 행복한 미



별 반 2

문 집 모 음

소를 보여줄 생각에 저는 꼭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때 이후로 저의 꿈이 생겼던 거죠. 앞으로, 의사가 된 이후에, 결혼을 하고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저에게 행복과 도움을 준 힘이었습니다. 그런 가족이 저에게 하나가 더 생긴다면 저에게 행복이 넘치겠죠? 그 행복이 저의 아이들과 저의 손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꿈은, 이 행복한 직업을 갖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꼭 그 꿈을 이루고 그보다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할 것입니다. 꿈이란 것은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라고 있는 것이고 약속을 지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이루기를 기원하며 더 열심히 더욱더 힘차게 걸어나갈 것입니다.

〈나의 한국문화의 영향〉

김민지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저는 네 살 때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저는 아직 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Resident Alien”으로 12년을 살아왔습니다. 미국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문화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종학교, 한국 교회도 다니고 집에서 한식만 먹고 한국 티비도 많이 보니

다. 나의 정체성은 한국인인가, 아니면 미국인인가? 사람들이 저에게 어디서 자랐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헤맬니다. 저의 첫 4년은 한국에서 지냈으니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나의 성격, 행동과 본능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지낸 날들이 기억에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4년이 정말로 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의 모든 학교생활을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미국아이처럼 교육을 받고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저를 미국사람보다 동양사람으로 봅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의 대한 선입견을 가집니다. 모든 동양인들은 똑똑하고, “nerd” 같고, 엄한 부모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그렇진 않지만 생활과 문화가 다른 것은 맞습니다. 선입견을 가지면서 저의 진짜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이 피곤해서 저는 한국 교회에 있는 애들이랑 더욱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일 친한 친구들은 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한국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저는 “Korean-American”입니다. 저의 한국문화와 미국문화를 섞어서 더 재미있는 삶을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하게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Korean-American” 이라는 게 행복합니다.



별 반 2

문 집 보 음

〈나의 정체성〉 안 예 램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저를 보았을 때는 그냥 한국인이라고 착각 할수도 있고 미국인들은 제가 유학생이라고 착각을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었을 때 저의 영성한 한국어의 발음을 듣고 교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저의 능숙한 영어 실력을 보고 미국인처럼 보일수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 전에는 신비주의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는 저의 국적이 애매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Korean-American”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사람입니다. 저의 피는 100% 한국인의 피지만 Chapel, NC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한국적인 영향도 받았지만 생활 속에서 미국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반 한국인, 반 미국인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저의 문화에 영향을 끼칠수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세종학교와 한인교회도 다니고 다니고 집에서 부모님과 한국어를 씁니다. 저의 두 문화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사는 아시아인으로서는 안좋은 점도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아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민중 차별을 업

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아들은 눈이 작고 피부가 노랗다” 라는 겉모습에 대한 선입견을 떠나서 사회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더 잘하는것이 알려져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들은 아시아들의 성적의 기준을 높게 잡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쉽게 바꾸질 못합니다. 경쟁이 학교 안에서도 더 생기고 저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Korean-American”으로서 나쁜점보다는 좋은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 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아와 동방신기같은 가수들을 좋아했고, 그로부터 짝 k-pop을 들어 왔습니다. 저는 k-pop을 듣는 미국 친구들이 있고 한국 아이돌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집에서는 미국 방송을 아예 안봅니다. 당연히 한국 예능과 드라마가 훨씬 재밌습니다. 개그콘서트처럼 재미있는 미국 코미디 방송이 어디있습니까? 저는 한국 연예인들을 미국 연예인들보다 더 좋아합니다. 한국친구들과 연예인과 방송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저는 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둘 다 체험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울수 있고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더 넓게 생각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Korean-American”이라는 타이틀이 자랑스럽습니다.



별 반 2

문 집 모 음

〈나에게 한국이란 나의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이 사 론

나에게 한국이란 나의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세계 지도 안에서 나의 나라 대한민국을 찾으려면 눈을 크게 떠야한다. 오른쪽 맨 구석에 있는 토끼 모양의 작은 나라! 그것도 반쪽 만인 내 나라! 하지만 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이다. 정말로 작은 고추가 매운가 보다. 비록 나라는 작지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면 세계적으로 잘한다. 세계의 좋은 대학들에서 좋은 성적으로 한국을 빛내는 한국 학생들, 세계적인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UN 반기문 사무총장, 그리고 요즘 빌보드 차트 2위를 하고 있는 강남스타일 싸이까지!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스케이팅을 잘하는 친구가 김연아 선수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면서 나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 순간 내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는지 모른다, 또 얼마 전 한국의 날 기념행사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강남스타일 노래와 춤을 쳤다. 우연히 어떤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미국분이 우리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우리를 그분의 레스토랑에 초대도 해주셨다. 그 레스토랑의 멋진 무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춤을 선보이며 한국을 자랑할수있었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아시아 학생들 많이 편이다. 그래서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온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때에 내가 먼저 한국인이라고 소개를 한다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친구들과 이

야기를 하면 나보다 한국 노래와 드라마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미국에서까지 한류의 열풍을 실감할수가 있다. 나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미국 노래와 드라마보다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 한국 노래가 더 좋고, 한국 드라마가 훨씬더 재미있다. 한국이란 나라가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알수있는 방법은 월마트와 베스트바이를 가는 것이다. 휴대전화는 말할것도 없이 세탁기, TV, 냉장고 등 삼성과 LG 제품을 쉽게 볼수가 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찾는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한국 휴대전화를 주로 사용한다. 내가 너무 한국이란 나라의 자랑스러운 나였나? 어쩔수 없다. 길을 걷다가도 현대 차를 보면 한국이 자랑스러워서 기분이 좋아지는 나는 어쩔수 없는 한국사람이다. 나도 나중에 커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사람 되도록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고있다. 사람들이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면 나와 같은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할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싶다. 누군가 나에게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당당히 대답할수 있다, 나는 한국사람이라고. 나에게 한국은 나의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우리는 친구〉 전 수 진 (아름다운 상)

나는 열세살, 너는 네살이다.
너는 너의 엄마 뒤에서 숨어 나를 뺀



별 반 2 문 집 모 음

히 바라본다. 너의 호기심을 품은 눈빛으로 나한테 다가와서 묻는다. “So are you Korean too?” 나는 열네살, 너는 다섯살이다. 나는 방귀로 사람을 날려버리는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는 크게 웃는다. 도서관 사서가 झा려보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의 웃음은 그치질 않는다. 나는 열다섯살, 너는 여섯살이다. 오늘도 나는 너에게 전래동화를 들려준다. 너는 너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한국말이 적힌 책을 바라본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말한다. “I want to read what it says here.” 너는 그 날부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열여섯살, 너는 일곱살이다. 우리는 글자를 배우고 있다. 어떤 한국 여자아이기가 나타나 왜 한글을 아직도 모르냐고 물어본다. 너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너의 기특한 호기심은 사라진다. 너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물어본다. “Why am I so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m?” 나는 너를 안고 또 안아준다. 이제 나는 열더덜살, 너는 아홉살이다. 나는 4년 전 처음 읽어준 전래동화를 꺼낸다. 너는 웃으며 읽는다. 너의 발음은 서투르고 속도는 아주 느릴지라도 나에게는 멋있고, 거대하고 아름답다. 지난주 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감사해요, 선생님”, “나도 고마워.” 너 덕분에 한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 또 나에게 한글을 가르쳐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 뒤로 돌아보면 너도 나를 가르쳤던 것 같아. 우리는 선

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였던 거 같아. 같이 힘이 되어주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힘들 때나 기쁠 때 같이 그 행복과 힘겨움을 나누는 그런 친구.

〈나의 꿈〉 진 소 민

별반 박 지영 선생님은 정말 착하신 선생님입니다. 우리 반 선생님은 키도 적당하고 예쁘시다. 가끔씩 우리한테 야단도 치시지만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안다. 우리 반이 가끔씩 장난을 많이 쳐서 힘드실 수도 있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를 반겨 주신다. 우리의 눈에 맞추실려고 재미있게 수업을 해주신다. “lalalalala pretty lady” 이것은 선생님에 대한 노래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골든벨 수업을 준비하시는 중이다. 우리 반은 선생님을 통해 한국어를 아주 재미있게 배운다. 매일 힘드실 수도 있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봐서 좋다.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가 아침에 피곤한 아이들의 졸음을 깨워준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온다. 세종 학교에 가끔씩 오기 힘들고 귀찮아도 선생님을 생각하면 몸이 저절로 일으켜진다. 나중에 나도 커서 선생님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선생님 사랑해요.



별 반 2 문 집 모 음

<나의 꿈> 정 현 우

나의 꿈은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 추워서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내 꿈을 바꾸기로 하였다. 나는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징그러운 것들과 부러진 뼈, 피와 상처를 보면서 나의 꿈이 또 바뀌었다. 그래서 나의 새로운 꿈은 아프리카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였다. 하지만 아프리카에는 병도 많고 위험할 것 같아서 꿈을 바꾸었다. 이번에는 안전한 꿈을 정했다. 비즈니스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사업은 너무 일이 많고 재미가 없어서 나는 또다시 새로운 꿈을 찾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내가 찾아낸 꿈은 너무 위험하지도 않다. 이번 나의 꿈은 너무 재미없지도 일도 많지도 않고 축지도 덜지도 않은 일이다. 내 꿈은 나무가 되는 것이다.

<나의 꿈> 홍 예 은

나의 꿈은 내 Bucket List에 있는 것들을 반 이상을 이루는 것이다. Bucket List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의 리스트입니다. 제 리스트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호주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이 꿈을 이루게 친구 두 명이랑 국제적인 여행을 떠나서 먼저 미국에 남부에 가서 제 친

구 한 명이 “Southern Boy”를 찾고, 영국을 가서 다른 친구의 영국 사람을 찾는 다음 호주로 가서 나의 호주 남자를 찾는 거예요. 호주 남자를 찾는 거 말고도 그 리스트에는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새해의 이브날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재미있고 평생을 기억하며 살 것 같아요. 또 다른 꿈은 한국의 연말 시상식들에 가는 것이예요. 제일 가고 싶은 것은 가요대전입니다. 제 Bucket List에 이루기 힘들고 큰 것들이 많지만 작고 이루기 쉬운 것도 있습니다. 드라마 “커피 프린스”에서 고은찬이 피자 한판을 말아서 먹었었습니다. 그렇게 피자를 먹어 보는 것도 제 리스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피자는 너무 두꺼워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한국에 가서 해보고 싶습니다. Bucket List안에는 하고 싶은 것들은 더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이루고 싶습니다.



신입반 선생님 | 엄선규

아직도 창밖에는 눈이 쌓여 있어 실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학기가 끝나가고 봄을 맞을 때가 되었나 봅니다. . 세종문집을 준비하면서 올해 신입반을 어떻게 지냈는지 되돌아 봅니다.

새로 시도 해보는 것으로 한글을 배울 때가나다라순이 아닌 방법으로 배우기, 전래 동화로 일학기에 내용을 배우고 이학기에 연극하기, 말하기 숙제를 휴대전화로 통화하기등을 해보았습니다. 어른들과 중학생, 고등학생이 섞여 있어 처음에 다소 분위기가 어색하였으나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앤디, 레이시(연서), 팀, 동욱이, 동일이, 일학기에 왔었던 드위파, 엠마, 제니퍼,

앤드류, 조셉, 제시카, 메디슨, 이학기때부터 오는 상현이, (또다른) 엠마. 이 모두는 한국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학생들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신입반 친구들 (*결석)

Mune, Tim, Reicy, Muneaki, Daniel(심상현), 자원봉사 정호철, Emma, *Andi





신 입 반

문 집 보 음

<앤 디>

가족은 모두 네 명이에요. 아버지는 운동을 해요. 어머니는 재미있어요. 아버지는 마흔 아홉살이에요. 어머니는 마흔 여덟살이에요. 언니는 학생이에요. 언니는 열 일곱살이에요. 언니 이름은 은래예요. 나는 열네살이에요. 제 이름은 앤디예요.

<앤 디>

어제 우리 가족은 친구와 같이 파티에 갔어요. 우리는 사과를 먹었어요. 아버지는 사과를 샀어요. 영서는 기분이 좋았어요. 내 오빠는 나와 같이 춤을 추었어요. 어머니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언니는 손으로 박수를 쳤어요. 아버지는 피자 떡을 샀어요. 떡은 맛있었어요.

<Reicy (연 서)>

어제 가족과 친구들과 같이 파티를 했다. 앤디는 노래를 많이 했다. 마리아와 호세는 같이 춤을 추었다. 음식을 많이 먹었다. 과자도 많이 먹었다. 가족과 친구들과 같이 기분이 좋았어요.

<매 디 슨>

안녕하세요? 매디슨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요즈음 세종학교에서 연극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준비해요. 저는 임금님 역이예요. 연극 후에 사진을 보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또 편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13년 1월26일
매디슨 올림

<앤 디>

선생님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앤디예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미시간은 날씨가 추워요. 눈이 많이 왔어요. 한국은 어때요? 요즈음 저는 책을 많이 읽어요. 이 책 이름은 이탄알 원 (Eternal Ones)이예요. 아주 재미있어요. 선생님은 요즈음 어떤 책을 읽으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2013년 1월26일
앤디 올림

<제 시 카>

할머니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참 보고싶어요. 거기는 어때요? 여기 미시간은 눈이 많이 왔어요. 우리는 연극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준비해요. 다음에 또 편지를 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2013년 1월26일
제시카 올림



신 입 반

문 집 모 음

〈Reicy〉

어머니께,
그 동안 안녕하셨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미시간은 눈이 많이 왔어
요. 겨울이에요. 거기는 어때요? 여기는
추워요.

어제 친구랑 _____에서 만났
어요. _____을 했어요. 아주 재미 있
었어요. 안디랑 동물원에서 지냈어요.
또 편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13년 1월26일
Reicy 올림

여기는 추워요. 한국은 어때요?
감가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2013년 1월26일
최동욱 올림

〈이 상 민〉

할머니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2013년 1월26일
이상민 올림

〈심 상 현〉

할머니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는 상현이에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미시간은
요사이 많이 추워요. 한국은 어때요?
감기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2013년 1월26일
심상현 올림

할머니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한국학교에 다녀요.
이 한국학교 이름은 세종학교예요. 세종
학교는 재미있어요. 요즘 미시간은 아
주 추워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기 때
문이에요.
거기는 어때요? 감기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최 동 일〉

〈최 동 욱〉

할머니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동욱이에요.

2013년 1월26일
동일 올림



색동반 선생님 | 유정옥

올해도 색동반에서는 가브리엘, 정길, 클로이, 마야, 준수, 보배, 희섭, 태현, 은영, 나영, 1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세종학교는 한글 뿐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한국인 학생들끼리 모여 토요일 반나절동안이라도 문화적 동질감을 즐길 수 있는 참 좋은 장소입니다. 한국어 뿐 아니라 한국 문화, 역사에 관심을 보이고 열심히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며 또한 귀한 토요일 오전에 한글 공부를 위해 꾸준히 도와주시는 색동반 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여학생들이 태권도를 열심히 배우고 노래하기 싫어하던 남학생들도 음악시간에 열심히 참여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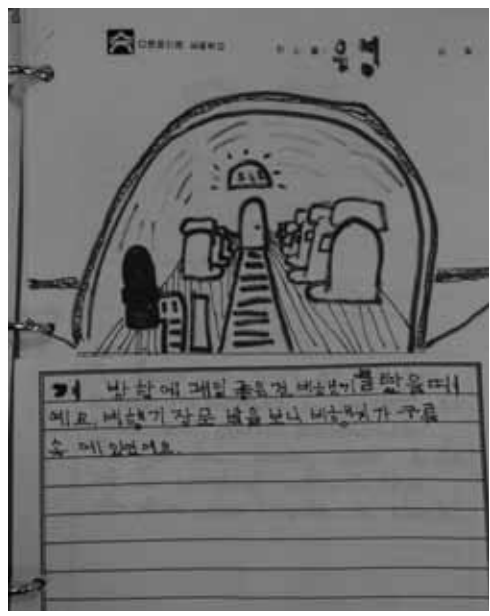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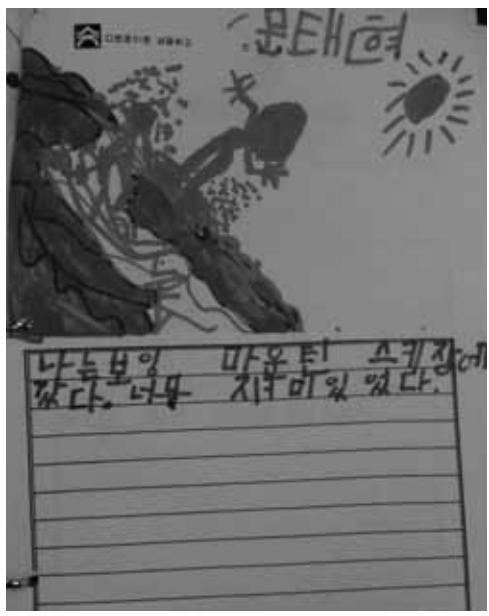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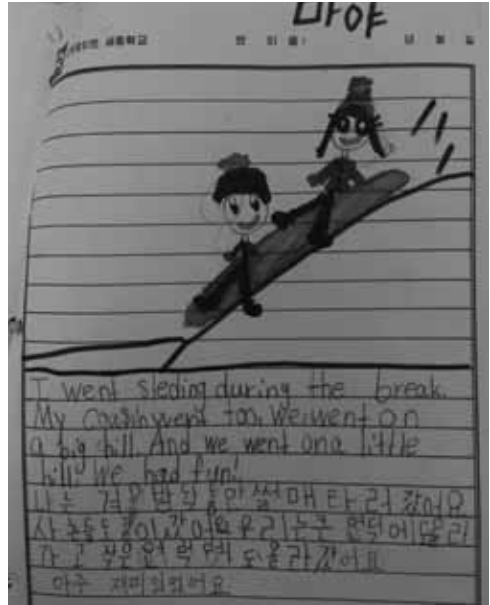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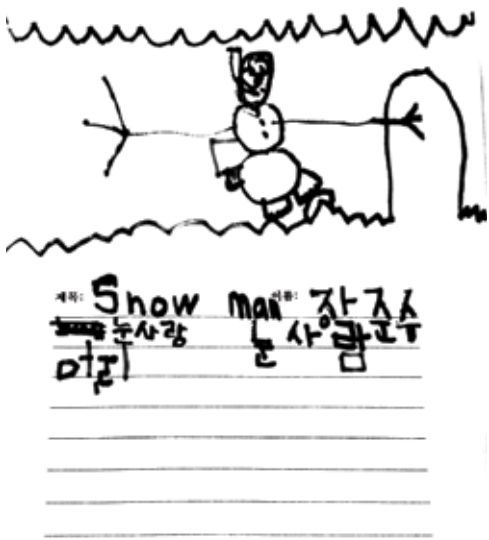
수업내용, 특히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학생들이 제일 대견스럽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더욱 더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효과적인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제가 교사로서 배우는 만큼 좋은 결과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색동반 친구들

Gabriel Rodgers, Chloe Kurschat, 문태현, 조나영, 박은영, 원희섭, 마야 Fukumori, 장준수, 양보배, Jonah Mitdg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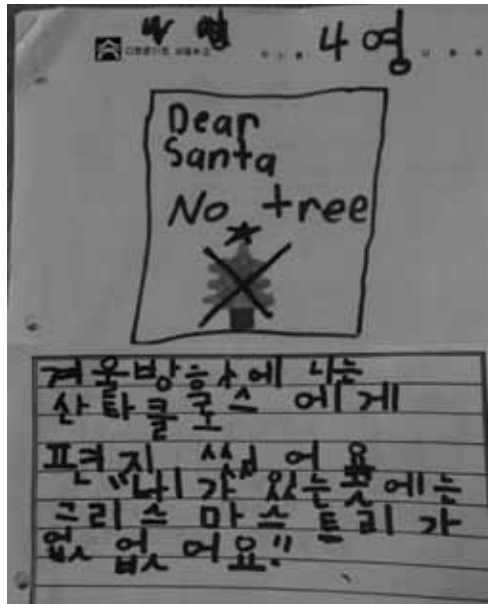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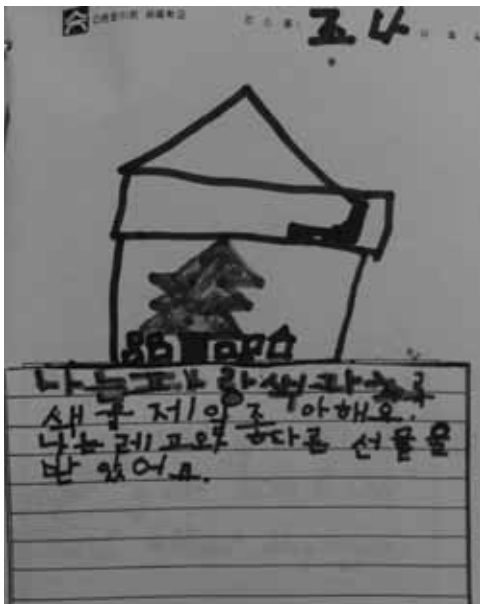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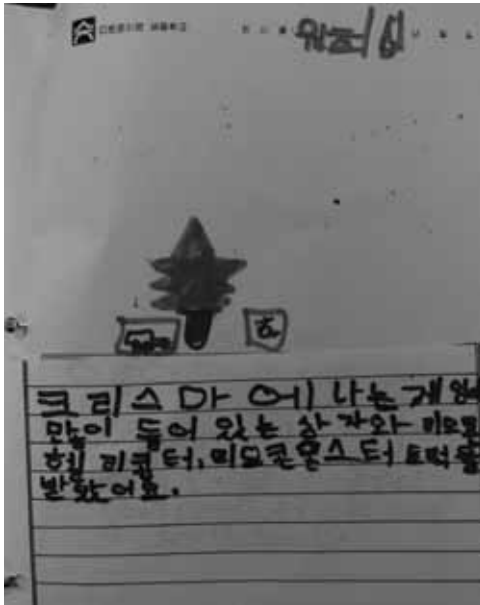


색 등 반 문 집 모 음





색 동 반 문 장 모 음





종달새반 선생님 | **은금주**

금년에도 종달새반은 소규모지만 한국말을 배우려는 열의에 찬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 온 카일, 지난 해 기초반을 끝내고 우리 반에 합세한 와티, 훌부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금년 여름부터 일 년 동안 한국에 가게 된 민희, 일 년 동안 멕시코로 전근되었다가 금년 2월에 돌아 온 닉, 그리고 건강 문제로 2학기에는 등록을 못한 빈센트씨...모두들 너무 소중한 학생들이다.

교과서로는 한국어 1 (국제교육진흥원), Integrated Korean Beginning 2 (University of Hawaii), 생생한국어 듣기(초급코스)를 사용했다.

한국어 드라마를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도 계속 한국어에 흥미를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달새반 학생들 (*1학기)
강민희, 심카일, 서유석, 샤딜 외티,
*반빈수



종달새반

문집 모음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1〉 심 카 일

지난 주에는 여러가지 일이 많았어요. 월요일에는 친구네 부엌 천장 벽지를 제거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화요일에는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그러나 옆 집에 사는 친구가 학교 보드멤버에 출마해서 나는 그 광고지를 나누어 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세 시간이나 걸었어요. 수요일에도 두 시간 걸었어요. 목요일에는 몸이 아주 많이 아팠어요. 다리하고 등이 너무 아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2〉 심 카 일

지난 주일에 나는 결혼 못 하는 남자를 다시 봤어요. 두번째라 더 재미있었어요. 조재희는 재미있는 배우예요. 자막이 없어서 다 이해 못했지만 이번에는 문장들을 더 많이 이해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들은 신사의 품격, 커피프린스, 그리고 결혼 못 하는 남자 예요. 나는 한국 배우들 중에 공유, 지진히, 장동건이 마음에 들어요

〈겨울방학에 있었던 일〉 심 카 일

겨울방학에 남편하고 같이 찜질방에 가러 시카고에 갔어요. 지난 번 시카고에 갔을 때는 우리는 찜질방을 구경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카고에 갈 때 찜질방에 꼭 가야 했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나는 정말 즐겼어요. 그 찜질방은 한국 드라마에서 본것과 똑 같았어요. 나는 수

건 모자 만드는 것을 배웠어요. 설렁탕이 아주 맛있었어요. 달걀하고 사이더는 안 먹었지만 다음에는 할 거예요.

〈2013년에 하고 싶은 일들〉 심 카 일

금년에 재호하고 나는 쉰 살이 되요 그래서 우리는 오십 생일을 축하하러 라스베가스에 가고 싶어요. 우리 앞 집 사는 여자 친구도 쉰 살이 되요. 그 친구 부부하고 같이 라스베가스에 가려고 해요. 나는 도박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베가스가 좋아요. 골프도 하고 등산도 하고 좋은 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가고 싶지만 계획하기가 힘들어요. 친구들은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영은 처제에게〉 반 빈 수

호텔과 병원 예약을 하는데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처제와 가족들을 드디어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되요. 영숙씨는 처제의 요리와 특히 김치에 대해 자랑을 많이 해요. 그리고 처제와 영주와 함께 할 당일 여행 계획도 기대되요. 이번 여행을 위해 카메라를 샀는데 처제 사진을 많이 찍을 테니까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빈수쌤

〈2012년에 있었던 일〉 서 유 석

나는 작년에 멕시코의 훌미씨오에서 지냈어요. 훌미씨오는 멕시코 북서쪽에



종달새반

문집모음

있고 여름 동안 날씨가 정말 따뜻했어요. 나는 포드공장에 가서 새로운 자동차를 launch하는 일을 했어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에서 8시쯤 까지 일했어요. 일은 정말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멕시코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행복한 생활을 했어요 멕시코에 있는 동안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바닷가에 자주 갔고 낚시도 많이 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내가 아주 큰 saifish를 잡았을 때였어요. 우리는 큰 파티를 했고 맛있는 생선타코를 만들었어요. 나는 대단히 길고 어려운 일을 끝내고 금년 2월에 돌아왔어요.

〈여름 휴가〉
사딜 와티

여름 휴가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갔습니다. 내 조카와 나는 한국에도 갔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내 조카 이름은 Fitri이고 22세입니다. 우리는 박물관, 남산타워등 많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남산타워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국을 즐겼습니다. 우리는 지하철도 타 보고 버스와 택시도 탔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께〉
사딜 와티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는 매 주 토요일에 세종학교에 갑니다. 평일에 보통 저는 아침 일곱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커피도 마십니다. 매 주 저는 아홉 시부터 약국에서 일합니다. 토요일에

는 세종학교에 가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어 공부가 끝나고 한국 영화도 봅니다. 우리 반에는 학생이 또 하나 있는데 학생 이름은 카일이고 선생님 성함은 오금주입니다. 저는 이 년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좋아합니다. 다음에 또 편지를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2년 11월 28일
와티 올림

〈2013년에 하고 싶은 일들〉
강민희

저는 2013년에 아주 바쁠 것 같아요. 우선 2월에는 친구 만나러 캘리포니아에 가요. 우리는 트래피즈를 배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태권도 US OPEN에 참석하러 라스베가스에도 갈 거예요. 5월에는 제 대학 졸업식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제가 미시간대학 졸업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세요. 7월에는 풀부라이트 장학생으로 한국에 일 년 동안 가게 되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거예요. 한국에 가면 대학교 친구들과 같이 떡볶기도 먹고 노래방에도 가고 싶어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대학을 MIT로 가서 자주 못 만났는데 이번 여름방학에 그 친구도 인턴십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되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봉사학생 | 김윤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10학년 때 처음으로 도우미가 아닌 선생님이로 세종학교에 나가게 되었다. 언니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시작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언니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무엇보다 나는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도 언니처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별다른 준비 없이 수업에 들어갔다.

막상 선생님이 되고 나니 언니의 도우미로 보았을 때와는 아이들이 다르게 보였다. 언니의 도우미이었을 때는 그저 귀여운 아이들이 이었지만 내가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귀엽게 수다떠는 아이들의 말소리가 수업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었다. 어린 아이들을 고등학생인 내가 가르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고 세종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은 여전히 나에게 절망만을 안겨주며 멋대로 행동했다. 아이들에게 당연히 그런 것이지만 10학년 때의 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그저 미웠을 뿐이었다. 한번은 내가 아이들의 발차기를 가르

칠때였다. 아이들은 내 설명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기도 했다. 몸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하면 해야 했기에 나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말았다. 우는 아이들도 있었고 뼈진 아이도 있었다. 수업의 분위기는 어두워져 있었다.

내가 처음 화내는 모습을 보고 놀란 아이들은 말을 잘 들었지만 수업은 그전 만큼 밝지 않았다. 곧 아이들은 다시 돌아왔지만 아이들이 조용했을 때 나는 어쩐지 수업 진행이 더 안되는 기분이었다. 내가 원했던 아이들의 조용함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아이들은 활동을 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다시 원래의 아이들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아이들에게 고맙다. 아이들이 떠들면 가르치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들의 생기발랄함이 수업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중에 환이가 도우미로 와서 한결 편해지긴 했지만 이때도 나는 저번 일을 교훈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등의 행동들은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나는 아이들을 완벽하게 태권도 하는 아이들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이 태권도라는 스포츠를 알게 되고 흥미를 가지고



봉사학생 | 김윤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해마다 하는 예술제때 나는 무대에 올라가는 아이들 보다 더 긴장을 하는 것 같다.

아이들이 무대에서 틀리는 것은 아닌지 행여나 실수를 해서 다치는 것은 아닌지 무대밑의 내가 더 조마조마 하는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의 공연이 끝나면 그제서야 마음을 좀 놓았던 것 같다. 예술제가 끝나면 아이들을 보러온 부모님들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시곤 한다. 하지만 난 부모님들의 칭찬 보다 무대가 끝나고 나에게와 칭찬을 받으면 기뻐 하는 모습에 더 큰 행복을 느꼈던 것 같다. 무대를 마친 후의 아이들의 기쁜 표정과 밝은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마치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된 듯 한 기분이 들곤 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세종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세종학교에 나간걸 내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 한다.

이제 나도 이번 여름부터 언니와 같은 이유로 세종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언니의 빈 자리를 느끼면 개구쟁이 같았던 아이들에게 시달리며 투정 부렸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세종학교를 떠날 나이가 되었다. 이제 아이들에게 익숙해져 더 잘

가르칠수 있다고 생각 했었는데 세종학교를 떠나야 한다니 시원한 마음보단 더 이상 아이들을 못본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더 많은 것 같다. 내가 세종학교를 떠나면 나를 대신해 다른 선생님이 아이들의 태권도를 가르치겠지만 아이들이 나를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밋다고 생각하고 화도 냈던 못한 선생님 이었지만 아이들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세종 학교를 찾았을때 더욱 큰 모습으로 나를 반겨 주었으면 좋겠다. 세종학교 봉사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중에서 나의 재능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수 있는 기쁨을 느끼게 해준 것에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계속 적으로 봉사를 하겠지만 세종학교에서 만들었던 아이들과의 멋진 추억 만큼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다.



무용 선생님 | *윤경은*





사물놀이/난타 선생님 | 엄지현







음악 선생님 | 김혜준





태권도 선생님 | 김재영





2013년 새해 행사





Univ. of Michigan 주최 코리안 퀴즈볼





제 29 회 예 술 제





제 29 회 예술제





한글학교의 날





한국학교의 날





이 야 기 대 회





스승의 날





태극마술





세종 캠프

Since 1925, Camp Westminster has provided a setting for summer camps, retreats, mission trips and outdoor summer worship in northern Michigan on beautiful Higgins Lake. The camp occupies forty wooded, lakefront acres 200 miles north of Detroit, and an outpost site on the Au Sable River. It is surrounded by hundreds of acres of state forest. The camp's forty-plus buildings, recreational facilities, and outdoor chapel are situated on Higgins Lake, known for its crystal clear spring-fed water and soft sandy bottom. The summer camp program allows children and youth to develop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self-worth in a Christian community. The enthusiastic, gifted, and multicultural staff are carefully selected and thoroughly trained. The camp director is year-round staff at the Westminster Presbyterian Church of Detroit. Camp

Westminster is accredited by the American Camp Association (what does this mean?) and licensed by the State of Michigan.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SJC 2013 on your website:

- this is our 38th year of continuous operation
- SJC will be held from Noon SUN April 4 - Noon SAT April 10, 2013
- Ages eligible: 7 - 18 (entering third grade to and including students who have finished 12th grade in 2013)
- Session Fee (Includes lodging, food, and activities): \$495.00 per camper
- Discounts available for SaeJong School members, and 2nd, 3rd, 4th children in same household
- complete information available on SJC website: www.saejongcamp.com



K - R I S E / 회 장 김민지

K-RISE is a club branched off of Saejong School that focuses on the celebration of Korean Culture and the spreading of the Korean Wave. K-RISE is made up of Saejong students grades 7 through 12 and is mentored by Sara Um.

Within K-RISE are three sections: K-Dance, where members dance to various K-pop songs (a principal part of Korean Culture), and K-News and K-Broad, where we spread Korean-related news with articles and pictures.

For the third year now, many students have actively and excitedly participated in K-RISE while gaining friends, skills, and national pride. We hope that we can help anyone who is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and/or just celebrating Korean Culture in any way possible.

K-RISE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한국문화를 우리만의 방법으로 배우고 즐기며 봉사도 하는 클럽입니다. 7학년 부터 12학년까지 세종학교학생으로 구성되었고 엄지현 선생님께서 담당해주십니다. K-RISE는 세가지 다른 부서로 작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K-Dance (한류열풍의 주역이지요), 그리고 K-News, K-Broad (글과 사진으로 정보를 알립니다). 삼년째 많은 학생들이 즐겁고 신나게 클럽활동을 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화를 몰랐거나 이제 막 알기 시작한 사람들,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K-RISE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친구클럽 / Chingu Club

What is Chingu Club?

It's a club for adopted Koreans, 2nd-3rd generations of Koreans, or anyone who has an interest in the Korean language and/or culture!

What do we do?

At our weekly tutorial sessions, you can get help on your Korean school homework or any other homework! We also have fun monthly get-togethers like apple picking, celebrating the Korean New Year, having picnics, doing arts & crafts, going to the movies, cooking yummy Korean foods, and more!

Where: Bloomfield Township Library Kids Section

When: Every Friday, 5-6 P.M. School Year

Email us at Chinguclub@gmail.com



세종학교 교가

조규홍 작사
박재훈 작곡

1. 내 - 학 의 어 린 이 들 이 - 곳 에 모 이 들 어 우 -
2. 너 - 화 나 손 을 잡 고 하 - 늘 을 지 고 의 어 한 -

리 를 길 - 러 내 어 문 화 오 원 년 기 리 빛 내 고 오 -
국 을 미 - 국 속 에 알 차 게 길 리 함 기 를 내 고 오 -

우 리 는 미 위 간 - 계 가 문 스 런 세 - 종 의 얼 빛

내 리 세 종 학 교 빛 - 내 리 세 종 학 교

등록안내/Registration

Sae Jong Society of Detroit
www.misaejongschool.org
P.O. Box 250632
Franklin MI 48025

수업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30분까지

수업 장소: Detroit Country Day School
22305 West Thirteen Mile Road
Beverly Hills, MI 48025

대상 학생: 유치부(4살) Kindergarten,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 입양아반

Class Hour: Saturday, 10:00 AM to 1:30 PM except Holiday

Location: Detroit Country Day School
22305 West Thirteen Mile Road
Beverly Hills, MI 48025

수업 과목: 한국어, 한국역사, 문화, 음악, 무용, 태권도, 한국요리, 시물놀이 등

수업 기간: 1학기 - 2013년 9월 7일 부터 2014년 1월까지
2학기 - 2014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등록 마감일: 2013년 8월 30일(등록 기일 내에 등록하시면 \$10.00 할인)

보내실곳: Sae jong Society of Detroit
P.O. Box 250632, Franklin, MI 48025
연락처: 김선미(248)562- 7741 / 엄선규 (248)756-0568

Subject: Korean Language, Culture/History, Korean Music,
Dance, Taekwondo

School Year: 1st Semester - September 7, 2013 to January 2014
2nd Semester - February 2014 to June 2014

Register by August 30, 2013 (Discount \$10.00 if registered on time)

Sent to: Sae Jong Society of Detroit



www.misaejongschool.org
www.facebook.com/misaejongschool